

요한계시록반 교재

데이빗리 목사



홀리타임즈

목 차 CONTENTS



제 1 장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_ 5
제 2 장	나는 천국백성인가? _ 31
제 3 장	천국을 알아야 천국에 거한다 _ 44
제 4 장	천국과 거룩한 성을 구분하라 _ 61
제 5 장	세상에 임할 재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라 _ 76
제 6 장	짐승의 표, 누가 맞는가? _ 151
제 7 장	마귀의 삼위일체 _ 164
제 8 장	마귀와의 전쟁 _ 203
제 9 장	천국의 성전 _ 222





1 장

/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요한계시록의 구조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www.RevivalForChurch.com)

주님은 '일곱교회'에 서신을 보내셔서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이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일곱교회'는 바로 성도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계 1-3장)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천국은 오직 '이기는 자'에 계만 제공되는 장소이며 '이기는 자'만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
(계 4-5장)

주님은 사도요한에게 천국의 모습을 약간만 보여 주십니다. 이 천국은 제 21-22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하나님 손에 놓인 '인봉된 책'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일곱인
(계 6장)

**재앙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세력**
(계 7:1-3)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서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사탄에게 이 세상의 재앙을 내리게 허락하신 것은 '이기는 자'를 찾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계 7:4-17)

'이기는 자'는 천국의 장막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섬기며 밤낮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일곱 나팔'의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인 맞지 않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 맞은 자에게는 재앙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곱나팔
(계 8-11장)

**재앙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세력**
(계 12-13장)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서 이 땅에 재앙을 가하는 사탄의 세력은 삼위일체(용, 짐승, 거짓선지자)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인 맞은 자에게는 재앙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계 14장)

'이기는 자'는 천국의 장막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섬기며 밤낮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일곱째 나팔'은 다시 '일곱 대접'으로 보다 구체적인 세상의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 때에 하나님의 인 맞은 자에게는 재앙보다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일곱대접
(계 15-16장)

**재앙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세력**
(계 17-18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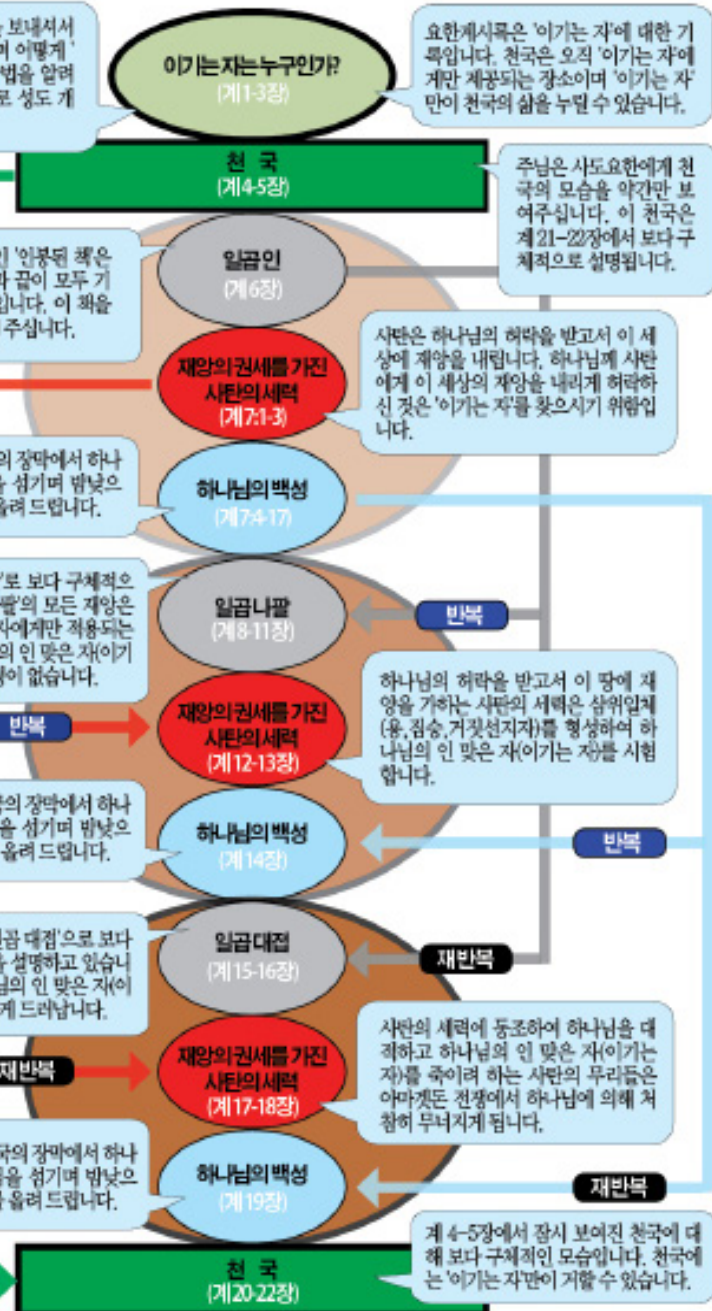
사탄의 세력에 동조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인 맞은 자(이기는 자)를 죽이려 하는 사탄의 무리들은 아다겟 전쟁에서 하나님에 의해 처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계 19장)

'이기는 자'는 천국의 장막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섬기며 밤낮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천국
(계 20-22장)

계 4-5장에서 잠시 보였던 천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천국에는 '이기는 자'만이 거할 수 있습니다.



제 1 장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훈련 목적

- *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 이해한다
- * '이기는 자'에 대해 이해한다
- * 요한계시록의 재앙에 대해 이해한다
- * 세상의 종말과 천국에 대해 이해한다
- *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 요한계시록을 일독한다
- * '이기는 자' 서적을 읽고 체험일지 쓴다

1.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1-3장)

- 1)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담겨져 있으며 이는 곧 '이기는 자'에 대한 기록입니다(계 1:1).

가.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세상의 재앙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계 1: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 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요 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이는 '감춰졌던 원래의 내용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 사탄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이며 이는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2)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를 찾기 위한 기록입니다.

가. 요한계시록은 '속히 될 일'을 보여줌으로써 '이기는 자'를 찾기 위한 기록입니다(계 1:1).

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듣고 믿고 지키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계 1:3).

3)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계 1:6).

[계 1: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 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 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 1:6]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자입니다(계 1:5).

-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됩니다.

- 하나님은 모든 이기는 자를 '나라'로 삼으십니다(벧전 2:9, 계 21:24, 계 22:2).
-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4) '이기는 자'는 '144,000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계 7장, 계 14장).

가. 요한계시록은 십사만사천명에 대한 내용을 연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저들이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계 1: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 21: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나. 요한계시록 7장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어
지고 14장에서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5)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흰 옷을 입게 됩니다(계 7:14).

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만 흰 옷
을 입습니다.

나. 흰 옷은 세마포 옷을 말하는데 세마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만 입는 옷입니다.

다. 세마포를 입는 자들은 옳은 행실을 행하
는 자들입니다(계 19:8).

라. 성도의 옳은 행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입니다(계 14:12).

6) 천국은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제공되는 장

[계 7:14] 내가 말하기
를 내 주여 당신이 아
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
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
였느니라

[계 19:8] 그에게 빛나
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
의 옳은 행실이라 하
더라

[계 14:12] 성도들의 인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
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
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
는 자니라

소입니다(계 3:21).

가. 오직 천국은 '이기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계 7:15).

나. 오직 '이기는 자'만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계 21:3-4).

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7) 주님은 일곱교회에 서신을 보내셔서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인지 알게 하셨습니다(계 1:4, 계 1:11).

가. 주님은 일곱교회에 서신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나. 일곱교회는 성도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 령기 때문에 일곱교회의 특성은 성도 개

[계 3: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 7: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서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 1: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계 1:11]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인의 특성과도 같습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사
데, 빌라델비아, 라오
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2. 일곱교회를 통해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

- 1) 많은 사람들이 '일곱교회'를 문자 그대로 교
회라고 생각합니다.

가. 그래서 '일곱교회'에 대한 내용을 소아시
아의 일곱교회에 국한된 내용으로 받아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
다.

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이기
는 자'에게 편지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 2) 주님의 편지를 받은 일곱교회는 곧 성도 개인
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 하나님은 이렇듯 일곱교회에 편지를 보
내심으로 이 땅의 모든 성도로 하여금 '이
기는 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나. 주님은 일곱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계 1:11).

3) 일곱교회에 대한 주님의 서신 분석

가. 에베소교회(계 2:1-7):

- 에베소교회와 같은 성도는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하고 거짓 가르치는 자들을 밝히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계 2:2-3).
- 하지만 에베소교회와 같은 성도는 주님과 맺은 첫사랑을 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계 2:4).
- 이러한 성도에게 주님은 첫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라 하셨으며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계 2:5).
- 에베소교회와 같은 성도들에게 필요

[계 1:11]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계 2: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계 2:3]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수고'는 <코포스>로써 이는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을 수반한 '수고'이며, '인내'는 <히포모네>로써 '아래'의 뜻을 가진 <히포>와 '머물다'란 뜻을 가진 <메노>의 합성어로 그 어떤 어려움에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의지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계 2: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 2: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

한 주님의 모습은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이십니다(계 2:1).

- '일곱 별'은 일곱교회의 사자이며 '일곱 금 촛대'는 일곱교회를 의미합니다(계 1:20). 주님은 모든 교회되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
리에서 옮기리라

[계 2: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
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계 1:20]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
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
대는 일곱 교회니라

에베소



에베소는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역 중심지로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라오디게아를 경유하여 에베

소까지 동방의 많은 산물들이 집결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역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테미(Artemis) 여신상이 있어 이곳은 미신이 매우 성행했으며 황제 숭배가 행해지던 매우 부도덕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은 도시인데 '스트라테고이'(Strategoi)라는 독자적 행정관이 있었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통치 기관으로서 '불레'(Boule)라는 민회관과 순회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명목상 수도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동안 머무르며 목회를 하였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 기독교 선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나. 서머나교회(계 2:8-11):

- 서머나교회와 같은 성도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거하는 성도입니다(계 2:9).
- 이러한 환난은 유대인들의 훼방에 의한 것이나 이는 '사단의 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당을 지어 기독교인을 핍박했는데 이는 사탄의 활동에 의한 것입니다(계 2:9).
-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 그

[계2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리스도인을 심하게 핍박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핍박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핍박하고 남편이 아내를 핍박합니다. 배후에는 사탄이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계 2:10).
- 서머나교회와 같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계 2:8).

[계 2: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계 2: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대략 8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역시 항구 도시로서 풍성한 교역지였습니다. 당시 인구는 대략 20-30만 정도였으며 매우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마나의 '머'(mymh)는 '유향'이라는 뜻인데 이는 이곳이 향료 수출지로도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호모(homer)의 출생지였으며 학문과 과학과 예술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이방인의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교적인 종교가 많았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기독교가 덜 전달되었고 순수한 복음이 잘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폴리갑의 생애'에 의하면 바울이 이곳에 전도하였다고 전해지며 사도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초대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이곳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다. 버가모교회(계 2:12-17):

- 버가모교회와 같은 성도는 사단의 방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성도를 가리킵니다(계 2:13). 이러한 성도는 순교자 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 주님은 '안디바'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는 사탄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주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시다.
- 하지만 주님은 버가모교회 성도를 책

[계 2:13]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망하셨는데 이는 저들이 발람의 교훈
(민 22-24장)과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켜 우상을 섬기고 행음의 삶을 살
았기 때문입니다(계 2:14).

- 주님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경
고하셨습니다(계 2:16).
- 버가모교회와 같은 성도들에게 필요
한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하
나님이십니다(계 2:12). 하나님을 두
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계 2:14]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
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
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
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
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
느니라

[계 2:16] 그러므로 회
개하라 그리하지 아니
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 2:12] 버가모 교회
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신이시니

버가모



버가모는 서머나 북쪽으로 대략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서
기원전 130년 경부터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문화적으로 소아시아의 중심부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에베소와
서머나가 무역이 왕성하여 상업적으로 대표되는 도시인 것과는 사뭇 다른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버가모에는 의학교가 있었는데 20여
마누건이나 소장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그 당시 책을 만
드는데 사용되는 양피지 생산지로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각종 서적이 많이 만들어졌으며 지식적으로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
니다.

이곳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발달되어 풍성한 문화를 누리는 도시이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식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많아졌습니다. 이곳
은 여러 우상 신전이 세워졌으며 특별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
다.

라. 두아디라교회(계 2:18-29):

- 두아디라교회와 같은 성도는 주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사업)과 사랑과 믿
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
아진 성도를 가리킵니다(계 2:19).
- 하지만 이들은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
음의 삶을 살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계 2:20).
- 이런 성도는 능력이 많은 성도입니
다. 헌신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뤼

[계 2:19] 내가 네 사업
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
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
다 많도다

[계 2:20]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
칭 선지자라 하는 여
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
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
게 하는도다

든지 잘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세벨의 죄에 빠집니다. 이세벨은 나라를 망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행음의 영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세화시키는데 앞장섭니다. 교회를 위한다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업에 참여케 하고 주님을 위한다 하면서 오히려 정치권에 뛰어듭니다.

- 두아디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 '아폴로'와 음행의 신 '이세벨'을 따라 음행을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지만 주님은 그 태양신보다 더 밝은 불꽃과도 같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청동업이 발달된 두아디라 사람들이 청동업을 통해 벌어드린 돈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죄악을 경고하기 위해 빛난 주석(청동)과 같은 하나님으로 언급하신 것입니다.
- 주님은 저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저들의 자녀들

[계 2:21]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을 죽이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계 2:21-23).

- 이러한 두아디라교회와 같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모습은 불꽃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꽃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석과 같은 발로 단단하게 단단하게 서계신 주님의 경고가 필요합니다(계 2:18).

[계 2:22] 불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계 2: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 2:18]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서머나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서 공업도시입니다. 이곳은 주전 190년 때부터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그 이후로 태양신 '아폴로'(Apollo)와 '아데미'(Diana), '삼바다'(Sambatha) 등의 신전이 있었으며, 청동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때 전도하였거나 이곳 출신이었던 루디아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워 이곳에 와서 전달하여 세워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 사데교회(계 3:1-6):

- 사데교회와 같은 성도들은 저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여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성도를 가리킵니다(계 3:1-2).
-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악한 일을 먼저 나서는 악한 성도가 있습니다.
- 이렇게 악한 성도라 할지라도 저들이 간간히 '흰 옷'을 입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계 3:4).
- 주님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드렸던 때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계 3: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
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
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
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
은 자로다

[계 3:2]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
였도니

[계 3:4]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
한 자 몇 명이 네게 있
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계 3: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
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도적같이 이르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계 3:3).

- 이런 성도들에게 필요한 주님은 '일곱 영'과 '일곱별'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계 3:1).
- '일곱영'은 성령하나님을 의미하며 '일곱별'은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별볼일 없고 교회에 피해만 끼치는 악한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이러한 악한 성도를 변화시켜 별처럼 만드십니다.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
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
가 알지 못하리라

[계 3:1] 사데 교회의 사
자에게 편지하라 하나
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
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
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
은 자로다

사 데



사데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대략 50k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 사데는 두아디라 남동 약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루디아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은 터키에 해당됩니다.

사데는 상업적으로 매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염직 고업과 양털 염색이나 금모래가 유명해서 사치와 부의 도시가 되었으며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사데는 남쪽을 제외한 전체가 모두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족한 물질과 함께 군사적으로도 매우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었으므로 안일한 태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태도때문에 두 번이나 정복을 당하고 말았는데 B.C. 6세기 고레스(Cyrus)의 공격과 약 200년 후 안티오쿠스(Antiochus)에게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사데는 시벨리(Cybele) 여신을 섬겼으며 로마 황제 숭배사상이 매우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곳 사데에는 사도요한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바. 빌라델비아교회(계 3:7-13):

- 빌라델비아교회와 같은 성도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성도를 가리킵니다(계 3:8).
- 이런 성도들은 말없이 꾸준하게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합니다. 말없이 꾸준하게 교회 일을 돕습니다. 말없이 꾸준하게 헌금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계 3:8]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입니다.
비록 눈에 띄지 않고 존재감이 없어
서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를 살리는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 주님은 이들에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계 3:11).
- 이런 빌라델비아교회와 같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계 3:7). 다윗의 열쇠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베드로도 다윗의 열쇠를 받았습니다(마 16:19).
-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드러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 성도이지만 오히려 잘난체하고 능력있다 의시대는 사람들이 저들 앞에 절하게 하실 것입니다(계 3:9).
-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지키시고 돌보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계 3:10).

[계 3:11] 내가 속히 오
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
게 하라

[계 3:7] 빌라델비아 교
회의 사자에게 편지하
라 기록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
이 없고 닫으면 열 사
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
도

[마 16:19] 내가 천국 열
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
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
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
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도 풀리리라 하시고

[계 3:9] 보라 사탄의 회
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
서 몇을 네게 주어 그
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
리라

[계 3:10] 네가 나의 인
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
리니 이는 창치 온 세
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
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사테는 두아디아에서 남동쪽으로 대략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 사테는 두아디아 남동 약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루디아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은 터키에 해당됩니다.

사테는 상업적으로 매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염직 고업과 양털 염색이나 금모래가 유명해서 사치와 부의 도시가 되었으며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사테는 남쪽을 제외한 전체가 모두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족한 물질과 함께 군사적으로도 매우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었으므로 안일한 태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태도때문에 두 번이나 정복을 당하고 말았는데 B.C. 6세기 고레스(Cyrus)의 공격과 약 200년 후 안티오쿠스(Antiochus)에게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사테는 시벨리(Cybele) 여신을 섬겼으며 로마 황제 숭배사상이 매우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곳 사테에는 사도요한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 라오디게아교회(계 3:12-22):

- 라오디게아교회와 같은 성도는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행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계 3:15-16).
- 또한 이러한 성도는 스스로 부요한 자여서 부족함이 없다 여기기 때문에 저들 스스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입니다(계 3:17).
- 주님은 저들에게 열심으로 회개하여 불로 연단한 금으로 흰 옷을 사 입어 수치를 면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보라고 명하셨습니다(계 3:18-19). 7개 교회 중에서 '돈'을 언급한 것은 라오디게아교회 뿐입니다. 이들이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성도는 미지근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흰 옷'은 천국의 옷입니다. '안약'은 영이 활성화

[계 3: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계 3:16]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 3: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 3: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 3: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 이런 라오디게아교회 성도와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십니다(계 3:14).

[계 3: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지점에 위치한 것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으며 '브루기아 가루'로 알려진 안약과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활발한 금융 거래로 인해 매우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물 사정이 좋지 못하여서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로부터 항상 수로를 이용해 물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설립한 것으로 보여지며(골4:12-13) 골로새 교회와 함께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일곱교회를 통한 나의 영적상태 파악하기

(요한계시록의 일곱교회)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www.RevivalForChurch.com)

교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왜 저들을 책망하셨나?	주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셨나?	이기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은?
에베소교회 (계 2:1-7)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	저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거짓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드러낸 것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계으르지 아니한 것	주님과 맺은 첫 사랑을 버린 것	첫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서머나교회 (계 2:8-11)	처음으로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없음	없음	환난과 고난 중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며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되리라
버가모교회 (계 2:12-17)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주님	사단의 방해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주님의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 우상을 섬기고 행음의 삶을 사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감추었던 만사를 주고 흰 돌을 주어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두아디라교회 (계 2:18-29)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주님	주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진 것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의 삶을 살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녀를 죽이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권세를 주리라
사데교회 (계 3:1-6)	일곱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주님	저들 중 몇 명은 흰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는 것	저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여 살아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	복음을 받아드렸던 때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이르리라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며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교회 (계 3:7-13)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지 아니한 것	없음	끝까지 나의 말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새에루살렘과 내 이름을 너 위에 기록하리라
라오디게아교회 (계 3:14-22)	아멘이시요 충성 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	없음	저들의 행위가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한 것	열심으로 회개하여 불로 연단한 금으로 흰 옷을 사입어 수치를 면하고 안약을 사서 보라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왕으로 통치하리라





2 장

/

나는 천국백성인가?

제 2 장 나는 천국백성인가?

훈련 목적

- *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 이해한다
- * '이기는 자'에 대해 이해한다
- * 요한계시록의 재앙에 대해 이해한다
- * 세상의 종말과 천국에 대해 이해한다
- *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땃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 요한계시록을 일독한다
- * '이기는 자' 서적을 읽고 체험일지 쓴다

1. 나는 천국 백성인가?

구분	해당 장	요한계시록 핵심 내용 분해
일곱 인	6장	일곱 인에 대한 설명(1)
	7장 1-3절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는 사탄에 대한 설명(1)
	7장 4-17절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과 천국의 모습(1)
일곱 나팔	8-11장	일곱 나팔에 대한 설명(2)
	12-13장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는 사탄에 대한 설명(2)
	14장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과 천국의 모습 (2)
일곱 대접	15-16장	일곱 대접에 대한 설명(3)
	17-18장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는 사탄에 대한 설명(3)
	19장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과 천국의 모습(3)
세상 끝	20장	주님의 재림 때 사탄의 불잡힘 / 복천년 / 심판에 대한 설명
	21-22장	천국의 삶에 대한 설명

1)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재앙을 설명하면서 천국의 백성에 대한 내용을 함께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가. 144,000명은 어떤 특정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는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4,000명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언급되었으나 실제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계 7:4).

[계 7:4]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2) 요한계시록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 이는 사탄이 주는 세상의 재앙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잘 지키는 '이기는 자'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나.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 그리고 19장에
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언급된 144,000명
에 대한 내용은 다시금 14장에서 다시금
144,000명에 대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 14:1-3).

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러한 반복은 이
세상의 재앙이 일곱인에서 일곱나팔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또 다시
일곱나팔이 일곱대접으로 거듭 구체적
으로 설명되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
다.

마.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이해하고
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보다 쉽게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계 14:1]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
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
린 양의 이름과 그 아
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 14:2] 내가 하늘에
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의 같
고 큰 우렛소리와의 같
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
라

[계 14:3]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
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
은 십사만 사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2. 십사만사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 144,000명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며 거룩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가. 144,000명은 어떤 특정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는 숫자의 개념도 아닙니다.

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144,000명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언급되었으나 이는 실제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계 7:4). 왜냐하면 144,000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것입니다.

2) 144,000이라는 숫자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는 '이기는 자'를 가리킵니다.

가. 이는 천국에 거할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 7:4]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나. 하나님의 자녀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계 14:3-4).

-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갈 3:29).
- 대한민국 백성은 원래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언급되어 있는 12지파에 속하게 될 것이며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다. 144,000 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가 합쳐진 숫자입니다.

- 거룩한 성에 보면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은 이

[계 14:3]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
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
은 십사만 사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 14:4]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
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
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
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니

[갈 3:29] 너희가 그리
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
라함의 자손이요 약속
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라

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계 21:12).

- 또한 거룩한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계 21:14).
-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와 예수님의 12제자의 숫자를 곱하면 144가 만들어집니다. 144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지파가 된 사람이어야 하며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 여기에서 '많다'란 의미의 숫자인 1000을 곱하게 되니 144,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1000이라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만(50,000)'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1000'이 가장 많은 수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144,000이라는 수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계21:12]크고높은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계21:14]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가리키는 숫자인 것입니다.

3. 십사만사천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

1) 주님의 보혈로 그 옷을 씻어야 합니다.

가. 오직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만이 144,000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계 7:14).

나. 주님의 보혈에 옷을 깨끗히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지 못합니다(요일 1:7).

라. 우리의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없어집니다(롬 10:9-10).

[계 7:14]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일 1: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롬 10:8]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 하지만 자범죄는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
를 통해 씻는 것입니다(요일 1:9).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
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
끗하게 하실 것임이요

2) 이들은 먼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
고 정절이 있는 자'입니다.

가. 여기서 언급된 '여자'는 우상을 의미합니
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계 14:4).

[계 14:4]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
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
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
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니

나.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는 오직 하나
님만을 섬기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
다(사 43:7).

[사 43: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다. 우상을 섬기며 짐승을 경배하는 삶은 명
백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일 뿐 아니
라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 것입니다(출
20:3-5).

[출 20:3] 너는 나 외에
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말라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고 또 위로 하늘에 있
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
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
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

3) 성경은 144,000 명에 해당되는 성도는 주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따르는 자입니다.

가. 이기는 자는 항상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계 14:4).

나. 이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명하셨습니다(마 16:24).

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길이며 처자식을 버리는 길입니다(눅 18:29-30).

4) 144,000명의 성도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입니다.

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계 14:4]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마 16: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눅 18:29]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눅 18:30]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가. 하나님과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이미 태초 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차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롬 8:29).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한님께서 태초 전에 구원받을 자를 미리 작정하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엡 1:4-5).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엡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 5)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정된 자들은 오직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계 14:5).

나. 베드로는 온 성도들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을 유지하도록 권고하였던 것입니다(벧후 3:14).

[계 14:5]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벧후 3: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3 장

/

천국을 알아야 천국에 거한다

제 3 장 천국을 알아야 천국에 거한다

훈련 목적

- *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 이해한다
- * '이기는 자'에 대해 이해한다
- * 요한계시록의 재앙에 대해 이해한다
- * 세상의 종말과 천국에 대해 이해한다
- *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댕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 요한계시록을 일독한다
- * '이기는 자' 서적을 읽고 체험일지 쓴다

1. 천국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언급 (4장, 20-22장)

- 1) 주님은 사도요한에게 천국의 모습을 두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가. 요한계시록 4-5장과 요한계시록 20-22장에 걸쳐 천국에 대해 보여주셨습니다.

나. 요한계시록 4-5장에서는 천국에 대해 약간만 설명해 주셨지만 요한계시록 20-22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2) 천국은 복천년과 구분됩니다.

가. 천국이 이뤄지기 이전에 복천년이 있습니다.

나. 복천년은 '복된 천년'을 의미합니다. 복천년을 가리켜 '천년 왕국'이라고도 말합니다.

다. 복천년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모두 천년동안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됩니다(계 20:1-4).

라. 복천년은 이 땅에서 이뤄집니다. 하지만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계 21:1).

[계 20: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계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3) 천국은 거룩한 성과 구분됩니다.

가.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입니다(계 7:15).

나.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장막에서 백성들을 만날 것입니다(계 21:3).

다. 하나님아버지와 예수님은 거룩한 성에 거하십니다(계 21:22). 천국에는 성전이 있지만 거룩한 성에는 성전이 없음을 요한이 봤습니다. 이를 통해 거룩한 성과 천국이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 거룩한 성은 천국과 함께 있지만 천국 위에 떠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계 21:2,10)

[계 7: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서

[계 21: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 21:10]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2. 이 세상의 땅의 변화 4단계

1) 첫째 땅



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땅은 모든 대륙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륙이 붙어있지 않았다면 전 세계에서 짐승이 방주로 나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은 일시에 전 세계 곳곳으로부터 방주로 모여들었습니다(창 7:9).

[창 7:9]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나. 오늘날 형성된 지구의 땅의 모습을 보면 아프리카 땅과 아메리카 땅의 모양이 이전에 붙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로 붙어 있었던 땅의 형태를 가리켜 '판게아'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판가이아>에서 따온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모든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1915년 독일의 알프레트 베게너가 제안한 이름으로 현재까지 불리워지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땅은 이처럼 한 대륙으로 붙어 있었지만 노아의 대홍수 사건 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남으로 인해 오늘날과 같이 대륙이 나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처음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번째 땅'인 것입니다.

라. 하나님께서 처음 땅에 홍수를 내리시어 새로운 땅으로 변화시키셨던 이유는 '죄악'이 세상에 만연했기 때문입니다(창

[창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 6: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 6: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6:5-7).

2) 두번째 땅

가. 하지만 두번째 땅 역시 죄악으로 만영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첫번째 땅보다 훨씬 더럽혀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듯 두번째 땅이 더럽혀진 까닭은 사탄의 활동이 더욱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사탄은 더욱 강력하게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이로 말미암아 부득불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번째 땅에 임했던 심판은 '물'이었으나 두번째 땅에 임할 심판은 '불'이 될 것입니다. 이미 첫번째 땅은 '물'로 심판을 받았고 두번째 땅은 곧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히 10:27, 벧후 3:10).

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세상의 종말은 '불'로 심판은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

[히 10: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벧후 3: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 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3) 세번째 땅

가. 이렇게 두번째 땅이 불로 심판을 받은 후
에 세번째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 세번째 땅은 '복천년'이 이뤄지는 땅이
될 것입니다. 첫번째 땅과 두번째 땅은
사탄으로 더럽혀졌지만 세번째 땅은 깨
끗함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이기 때문
입니다(계 20:1-3).

- 주님의 재림하심에 의해 사탄이 완전
히 진멸당할 때에 천사가 무저갱 열
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용을 잡습니다(계 20:2).
- 천사는 사탄을 잡아 '일천 년 동안' 결
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
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가둬 둘
것입니다.
- 이렇게 무저갱에 갇히게 된 사탄은 도

[계 20: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
터 내려와서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3] 무저갱에 던
져 넣어 잠그고 그 위
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
는데 그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저히 인간을 미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 사탄이 무저갱 속에 갇힐 때 사탄을 추종했던 악한천사들도 함께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천사는 하늘전쟁에서 사탄의 편에 섰다가 사탄과 함께 이 땅에 떨어진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사탄을 도와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 일을 행했던 자들입니다(계 12:9).
- 이렇게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무저갱에 갇히게 됨으로 인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 성경은 "...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3절 중)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만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계 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 20: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놓이리라

모든 나라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나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벧전 2:9).

라. 주님께서 의인들과 더불어 천년동안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계 20:6).

마. 복천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 1)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사 2:4).
- 2) 지구는 다시 변화되어 에덴동산과 같이 될 것입니다(겔 36:35).
- 3) 사탄과 그의 추종세력들은 무저갱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유혹할 수 없음으로 이 땅은 이웃과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찰 것입니다(계 20:2-3).
- 4) 사람들은 복천년 기간동안 자녀를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 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사 2:4]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겔 36:35]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갖게 될 것입니다(사 65:23).

- 5) 사람들은 짐승과 평화롭게 지낼 것입니다(사 65:25).
- 6) 사람들은 질병없이 나무처럼 오래 살 것입니다(사 65:22).
- 7) 사람들은 집을 짓고 그곳에 거하며 농사를 지으며 풍족하게 먹고 살 것입니다(사 65:21).

바. 복천년이 끝나고서 천국의 삶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 주님의 보좌 앞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을 취할 것이며 강 주변의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계 22:2).
- 성경은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만국'이라는 표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나라'로 여기십니다.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뿐이리라

[사 65:23]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사 65:25]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 65:22]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사 65:21]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사. 사도요한은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자들이었습니다(계 20:4-6).

-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4절 하)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살아서'라는 단어는 <에제산>인데 이는 육체적인 부활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 이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서 곧 장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포함하여 이미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아. 이렇게 복천년이 시작될 때에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 이러한 '첫째 부활'은 '둘째 부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치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계 20: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 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 둘째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만 첫째 부활은 오직 합당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부활입니다.
-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이 여러 보좌들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 실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좌정하여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주었던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은 이뤄질 것입니다(눅 22:30).
-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나라'가 되어 실제로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은 모든 성도들이 얻게 될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시다(단 7:22).

[눅 22:30]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단 7: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금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복천년이 끝난 이후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납니다(계 20:7).

- 사탄이 풀려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저갱으로부터 풀어놓은 것은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키 위함입니다
- 사탄은 마지막으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합니다. 성경은 '땅의 사방 백성'을 '곡과 마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계 20:8).
- 하지만 결국 사탄은 다시금 하나님에 의해 처참히 패하고 맙니다(계 20:9).
- 결국 사탄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계 20:10).

차. 그 이후에 둘째부활과 심판이 있습니다.

-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죽은 자, 산 자 모두)이 심판을 받습니다(히 9:27).
-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에 거하겠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계 20:7]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계 20: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
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
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계 20:9] 그들이 지면
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
리고

[계 20:10]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
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
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
리라

[히 9:27] 한번 죽는 것
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계 20:11-15).

4) 네번째 땅

- 가. 이러한 복천년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은 네번째 땅으로 다시금 변화될 것입니다.
- 하지만 네번째 땅은 세번째 땅과는 완전히 다른 땅이 될 것입니다.
 - 세번째 땅은 첫번째 땅과 두번째 땅과 연결되는 변화 속에 세워진 새로운 땅이지만 네번째 땅은 전혀 다른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전의 있었던 땅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땅인 것입니다.

- 나. 사도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 그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으며 '바다'도 없어졌음을 보았습니다.

[계 20: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 못이라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 사도요한이 바라본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는 땅과 바다가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계 21:1).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 장

/

천국과 거룩한성을 구분하라

제 5 장 천국과 거룩한 성을 구분하라

훈련 목적

- *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 이해한다
- * '이기는 자'에 대해 이해한다
- * 요한계시록의 재앙에 대해 이해한다
- * 세상의 종말과 천국에 대해 이해한다
- *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땃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 요한계시록을 일독한다
- * '이기는 자' 서적을 읽고 체험일지 쓴다

1. 거룩한 성은 무엇인가?

- 1) 사도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계 21:1-2).

가. 그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거룩한 성'이 하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은 '새 하늘과 새 땅'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게 될 천국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성'은 천국 위에 거하는 또 다른 장소입니다.

라. 이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그곳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 22:1).

[계 22: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 거룩한 성은 '예비한 신부'입니다.

가. 왜 사도요한은 거룩한 성을 가리켜 '예비한 신부' 같다고 하였을까요?(계 21:2).

[계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나. 그것은 '거룩한 성'에는 오직 주님의 신

부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
한 신부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거
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계
21:24).

다. 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거
룩한 성에도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는 거룩한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라. 거룩한 성에는 속되거나 가증하거나
거짓말 한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계
21:27). 하지만 천국에는 속되거나 가증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믿
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천국에 거하는 것과 거룩한 성에 거하는 것과 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가. 그 이유는 거룩한 성은 하나님과 주님

[계21: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
지고 그리로 들어가리
라

[계 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만 들어가리라

이 거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계 21:22).

나. 거룩한 성에는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이는 천국과 다른 것입니다(계 22:1-2)

2. 거룩한 성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 1) 사도요한이 보았던 '거룩한 성'은 이미 21장 2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다시금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계 21:10).

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었던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사도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거룩한 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나. 이처럼 천사가 사도요한에게 재차 '거룩한 성'을 보여준 것은 그만큼 거룩한 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 21: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 22: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 21:10]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2) 거룩한 성에 대한 매우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로부
터' 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 그래서 사도요한은 거룩한 성을 표현할
때 거듭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
오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입니
다.

나. 거룩한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는 것은 거룩한 성은 하나님께서 거하시
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다. 또한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천국 위에 거하고 있음을 말해줍니
다. 이를 통해 거룩한 성은 천국과 구별
되는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

다. 어찌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지 그
성의 빛이 마치 귀한 보석처럼 빛났으며 벽
옥과 수정같이 맑았습니다(계 21:11).

[계 21: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4) 거룩한 성에는 열두 문이 있는데 열두 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계 21:12).

[계 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가. 열두 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합당
치 않는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오지 못
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나. 이것은 마치 '그룹과 화염검'이 사람들로
하여금 에덴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 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창 3:24).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 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5) 열두 문들 위에는 이름이 써져 있는데 이스라
엘 자손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
습니다(계 21:12-13).

[계 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가. 거룩한 성의 문들은 각 면마다 3개씩 놓
여져 있었습니다. 동편에 3개, 서편에 3

[계 21:13]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개, 남편에 3개, 북편에 3개씩 도합 12개의 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나. 12개의 문은 거룩한 신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12개의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6)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었는데 그 위에 주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계 21:14).

가. '성곽'이라는 것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의미합니다.

나. 성곽이 튼튼해야 성이 전체적으로 튼튼해집니다. 성벽을 튼튼하게 쌓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초석인데 그 기초석에는 주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21:14]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7)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열두제자의 관계

가. 열두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혈통을 물려받은 유대인만 뜻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께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갈 3:29).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 열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확실히 지키는 자입니다(계 14:12).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지키는 자만이 거룩한 성의 성곽을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8) 거룩한 성은 금갈대로 척량되었습니다(계 21:15).

가. 그는 거룩한 성의 전체를 척량하면서 그

[계 21:15]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문들과 성벽을 모두 척량하였습니다.

나. '갈대'는 척량할 때 사용되는 지팡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 갈대'라고 하였으니 천사의 척량이 매우 정확함을 뜻합니다. 한치의 속임도 없고 거짓도 없는 매우 정확한 척량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 이렇듯 천사가 금 갈대를 가지고 거룩한 성을 척량하는 것은 오직 거룩한 신부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만일 거룩하지 못한 신부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천사에 의해 제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 이는 마치 언약궤 위의 속죄소에 놓여져 있는 두 그룹에 의해 합당치 못한 자들이 결코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9) 거룩한 성의 외형적인 모습

가. 그 천사가 금 갈대를 가지고 거룩한 성을
 측량하였더니 가로가 12,000 스다디온
 이고 세로가 12,000 스다디온이며 높이가
 12,000 스다디온이었습니다. 이는 거
 룩한 성의 모양이 네모 반듯하여 장광고
 가 모두 같았습니다(계 21:16).

[계 21:16] 그 성은 네
 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
 대 자로 그 성을 측량
 하니 만 이천 스다디온
 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
 이가 같더라

나. 거룩한 성이 이처럼 네모 반듯한 것은 하
 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뜻하는데 이는 점
 도 흠도 없이 거룩한 신부만을 받아 드리
 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의해 더럽혀
 지거나 우상을 섬기는 신부는 절대로 거
 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음을 뜻합니다.

다. 또한 거룩한 성의 길이가 12,000 스다
 디온이라고 하였는데 이 길이는 대략
 2,400km 정도입니다.

- 이는 한 스다디온의 길이가 185m 이
 기 때문입니다.
- 언뜻 보면 상당히 넓은 거리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이
 곳에 모여 있다고 볼 때는 턱없이 부

족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라. 그러면 왜 성경은 거룩한 성의 공간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했을까요?

- 그것은 12,00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 12라는 숫자는 3이라는 천국의 숫자와 4라는 땅의 숫자를 곱한 수입니다. 3과 4를 곱하면 12가 됩니다. 3과 4를 더하여서 만들어지는 숫자가 7이라면 3과 4를 곱하여서 만들어진 숫자가 12입니다. 7은 완전수이지만 12는 천국수입니다.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12,00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가장 큰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000이라는 숫자를 가장 큰 숫자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마. 또한 천사는 성곽의 두께를 측량했는데 그 두께가 144 규빗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성벽의 두께가 70m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계 21:17).

[계21:17]그 성곽을 측량하매 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 상당히 두꺼운 성벽이라 할지라도 70미터나 되는 성벽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성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성곽의 두께가 144규빗이라는 숫자 역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 144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를 곱한 수입니다.

- 3과 4를 곱하면 12가 됩니다. 이는 3과 4를 더한 수와는 비교가 될 수 있는데 3과 4를 더해 만들어진 7의 숫자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라면 3과 4를 곱해서 만들어진 12라는 숫자는 '천국'을 가리키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 이렇게 만들어진 12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곱하게 될 때 144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12 \times 12 = 144$).
- 따라서 성벽의 두께가 144라는 것은 천국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거룩한 성은 오직 거룩한 신부만이 거할 수 있는 장

소이기 때문에 더더욱 144라는 숫자는 천국의 의미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 거룩한 성의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성곽에는 12개의 기초석이 놓여져 있는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마노, 홍보석, 화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초석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에봇에 걸쳐진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출 39:8-14).

아.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있는 보석들은 모두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의 성곽의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과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은 거룩한 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 39:8]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하였으니
[출 39:9]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출 39:10]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출 39:11]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출 39:12]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출 39:13]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 테에 물렸으니
[출 39:14]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 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5 장

/

세상에 임할 재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라

일곱인과 일곱나팔과 일곱대접과의 관계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www.RevivalForChurch.com)

일곱번째인에서 일곱개의 나팔이 나오고, 일곱번째 나팔에서 일곱대접이 나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곱인보다 일곱나팔이 더욱 구체적이고, 일곱나팔보다 일곱대접이 더욱 구체적이다.

일곱인



첫째인

흰 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깨끗한 세상이 없어지고 점점 사탄의 활동에 의해 더러워지는 모습이 나타난다.(계 6:2)



둘째인

붉은 말. 세상을 전쟁으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려는 사탄의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계 6:3-4)



셋째인

검은 말. 경제적인 공황으로 더욱 세상을 어렵게 만들것이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계 6:5-6)



넷째인

청황색 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커지고 강력해짐으로써 세상의 25%를 죽음으로 몰아간다.(계 6:7-8)



다섯째인

사탄의 활동으로 핏박을 받는 성도들이 많아진다. 이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말씀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계 6:9-11)



여섯째인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별들이 떨어지고, 산과 섬이 움직이며,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계 6:12-17)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은 이 땅에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 (계 7:1-3)

인구는 14,400명(과) 한국백성이 주님을 경배한다. (계 7장)



일곱째인

일곱째인에서 일곱나팔로 다시금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의 종말을 바라본다. 일곱째인은 곧 일곱개의 나팔을 의미한다.(계 8장)

일곱나팔



첫째나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세상의 1/3을 태워버린다.(계 8:7)



둘째나팔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를 피로 만들고 바다의 생물과 선박의 1/3이 죽고 부서진다.(계 8:8-9)



셋째나팔

햇불같은 큰 별(썩이라고 불리움)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 1/3의 물이 쓰게 된다.(계 8:10-11)



넷째나팔

해, 달, 별의 1/3이 어두워져서 낮의 1/3이 빛을 잃는다.(계 8:12)



다섯째나팔

무저갱 열쇠를 받은 별이 떨어지고, 황충들이 다섯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해하지 않는다.(계 9:1-12)



여섯째나팔

네 천사들이 이끄는 마병대가 인류의 1/3을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인다.(계 9:13-21)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도 고난을 받는다.(계 11:1-14)

사탄은 천국에서 쫓김을 받아 이 땅에 거하면서 사람의 믿음을 시험한다.(계 12-13장)

집중의 표를 받지 아니한 144,000명이 사온 산(거룩한성)에서 주님을 경배한다.(계 14장)



일곱째나팔

일곱째나팔에서 일곱대접으로 다시금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의 종말을 바라본다. 일곱째나팔은 곧 일곱대접을 의미한다.(계 11장)

일곱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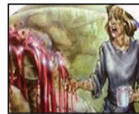
첫째대접

집중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역병이 생기는 재앙이다.(계 16:1-2)



둘째대접

대접이 바다(지중해)에 쏟아지니 바닷가 죽은 자의 피갈이 되어 모든 살아 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는다.(계 16:3)



셋째대접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아졌을때 물은 피로 변했다. 사람들이 순교자의 피를 먹도록 했다.(계 1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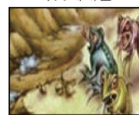
넷째대접

대접이 해에게 떨어지는데, 해가 강한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계 16:8-9)



다섯째대접

집중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자 저들이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계 16:10-11)



여섯째대접

유브라테강이 마르고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벌이게 된다.(계 16:12-16)



일곱째대접

하나님께서 대적자들(번개, 지진, 우박)으로 완전히 전멸을 시키신다. (계 16:17-21)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전멸을 당하고 만다.(계 17-18장)

복천년 후에 부활, 심판이 있고 이기는 자는 천국에 거하게 된다.(계 19-22장)

제 5 장 세상에 임할 재앙

훈련 목적

- *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 이해한다
- * '이기는 자'에 대해 이해한다
- * 요한계시록의 재앙에 대해 이해한다
- * 세상의 종말과 천국에 대해 이해한다
- *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 요한계시록을 일독한다
- * '이기는 자' 서적을 읽고 체험일지 쓴다

1. '일곱 인'과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관계 (6-19장)

- 1) 하나님의 손에 놓인 '인봉된 책'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계 5:1).

가. 하나님의 손에 놓인 '인봉된 책'이 펼쳐짐으로써 세상의 재앙은 시작이 됩니다.

[계 5:1]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지구종말 징조(순서별 설명)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www.RevivalForChurch.com)

첫째인 (계 6장)	둘째인 (계 6장)	셋째인 (계 6장)	넷째인 (계 6장)	다섯째인 (계 6장)	여섯째인 (계 6장)	일곱째인 (계 6장)
---------------	---------------	---------------	---------------	----------------	----------------	----------------

* 일곱인/일곱나팔/일곱대접은 지구종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 일곱인 → 일곱나팔 → 일곱대접 순서대로 재앙이 일어난다.

* 일곱번째 인에서 일곱개의 나팔이 펼쳐지고, 일곱번째 나팔에서 일곱개의 대접이 펼쳐지는 식으로 전개된다.

* 하나님께 인맞은 사람(144,000명)과 사방에서 몰려온 천국백성이 주님을 경배한다(계 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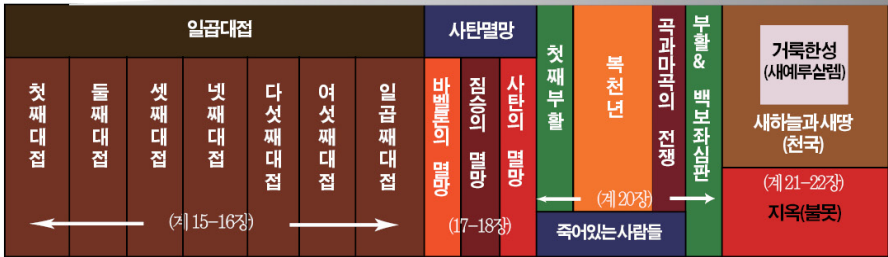
첫째나팔 (계 8장)	둘째나팔 (계 8장)	셋째나팔 (계 8장)	넷째나팔 (계 8장)	다섯째나팔 (계 9장)	여섯째나팔 (계 9장)	일곱째나팔 (계 10장)
----------------	----------------	----------------	----------------	-----------------	-----------------	------------------

*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과 짐승과 거짓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계 12장)

* 여섯째인 후에 인맞은 14,400명과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고(계 7장).

또 다시 일곱째 나팔을 분 후에 택함받은 14,400명이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온다(계 14장)

이러한 반복적인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반복된다.



* 바벨의 멸망(계 18장), 짐승의 멸망(계 19장), 사탄의 멸망(계 20장)

* 사탄과 짐승, 그리고 거짓선지자가 멸망을 당한 후에 복천년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이 첫째부활에 참여한다(계 204-6)

"[살전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전 4: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전 15: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고전 15:24] 그 후에는 나중이니 내가 모든 것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있는 1000년동안 복천년이 이뤄진다. 복천년이 끝날때 잠시 사탄이 풀려나고 사탄은 백성을 미혹하며 "곡과 마귀"간의 전쟁을 벌인다. 하지만 사탄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계 20장)

* 죽었던 사람과 살아있는 모든 사람, 사탄을 따르던 모든 추종자들 모두 부활하여 백보좌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계 20장)

* 새하늘과 새땅(천국)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거룩한성이 내려온다(계 21:1, 10)

* 거룩한성은 12진주문이 있고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고 보좌가 있고 그곳에서 생명수강이 흐르며 생명나무가 있다(계 21-22장)

* 거룩한성에는 성전이 없으나 천국에는 성전이 있어서 천국백성들이 하늘의 장막에서 주님을 예배한다(계 21:3)

나. 일곱개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세상의 재
양은 점차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2) '일곱 인' 안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펼
쳐집니다.

가. 일곱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이
펼쳐집니다.

나. 일곱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일곱 대접'
이 부어집니다.

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모두 세상의 종말을 설명하는 것이며 '일
곱 인' 안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 세상에 임할 재앙에 대한 두려움

1)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에 이 세상에 어떠

한 환난과 역경이 임하게 될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세상에 임하는 환난과 역경입니다.

나. 성경은 이것을 재앙이라고 말하며 재앙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구분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세상의 종말에 대해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할 내용은 세상에 임하는 모든 재앙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가.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그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나. 다만 이 세상의 믿지 않는 자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이 세상이 황폐해지고 무질서해지며 하늘과 공기와 땅과 물이

더럽게 변하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 이 세상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느 정도는 고난을 당하는 것 외에는 그다지 힘든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4) 하나님은 세상의 환난을 통해 '이기는 자'를 찾으십니다(계 3:10-11).

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 경배자를 찾기 위해 사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나.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다. 약간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여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참 경배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계 14:9-10). 이러한 자들은 '이기는 자'의 대열에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계 3:10]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 3:11] 내가 속히 오리라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 14:9]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계 14: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3. 일곱인

1) 첫째 인(계 6:2)

가. 첫째 인을 떼을 때 나타난 것은 '흰 말'이었습니다.

- '흰 말'은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며 다소 평온하고 평범한 날들이 진행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매우 깨끗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세상을 다시한번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 세상에 거한 마귀로 인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럽혀진 것입니다.

나.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는 것은 사냥을 위한 활이 될 수도 있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그가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경기에서 우승을 하였거나 일에 대한 업

[계 6:2]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서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적을 이루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선의 삶을 의미합니다. 승리하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좋은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 것입니다.

다. 이처럼 '흰 말'이 상징하는 바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보다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러한 세상은 지극히 일반적인 세상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 이러한 세상은 마귀의 공격을 가장 적

게 받는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라.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감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타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 사람들은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타락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롬 5:12).

마. 이러한 마귀의 공격으로 죄를 짓고 더럽혀진 자들은 정직하고 질서적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마음을 버리고 이기적이고 더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 이러한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은 점차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 바울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있는 모습을 로마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롬 1:21-25).

[롬 5: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1: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롬 1: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롬 1: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롬 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

바.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첫째 인에 해당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이미 세상은 첫째 인의 모습을 지나 둘째 인이나 셋째 인, 혹은 넷째 인이나 다섯째 인의 상태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 점점 마귀의 공격은 거세지고 있어서 그만큼 세상은 더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2) 둘째 인(계 6:3-4)

가. 주님께서 둘째 인을 떼셨을 때 '붉은 말 탄 자'가 나왔습니다.

- '붉은 말 탄 자' 역시 상징입니다.
- 실제로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온 것이 아니며 붉은 말 탄 자의 영향에 의해 이 땅에 화평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 다만 둘째 인을 떼었을 때 이 세상에 나타난 모습이 '붉은 말'로 그 상징성을 묘사한 것입니다.

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롬 1: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계 6:3]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계 6:4]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나. 둘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은 '화평'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화평'만큼 축복된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의 '화평'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눅 2:14).

[눅 2: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다. 하지만 마귀는 주님께서 주신 '화평'을 제하려고 안간힘을 기울입니다. 우리에게서 화평을 제거하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화평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 주님께서 주신 화평을 빼앗겨버린 사람에게서 나타난 증상은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화평'을 빼앗긴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사람도 '화평'을 빼앗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도 '화평'을 빼앗긴 자이며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삼는 것입니다.

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땅이었지만 마귀로 인해 그 땅에 '화평'이 없어지면서 세상이 미움과 싸움과 전쟁으로 물들어지고 만 것입니다. 둘째 인은 바로 세상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 이미 많은 사람들은 둘째 인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셋째 인이나 넷째 인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 셋째 인(계 6:5-6)

가. 주님께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 '검은 말'은 셋째 인에 해당되는 세상의 상징입니다.
-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 저울은 밀을 재고 보리를 재는데 사용하였습니다.
-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재니 한 데나

[계 6:5]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계 6:6]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리온에 밀이 한 되가 되고 보리가 석
되었습니다. 이는 보통 때에 판매되
는 금액보다 12배에서 16배나 높은
액수였습니다.

나. 성경의 이러한 표현은 셋째 인에 해당되
는 세상의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는 표현입니다.

- 오늘날에도 물가가 너무나 올랐습니
다.
- 열심히 일을 하여 받는 임금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지만 물가는 상
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아 있습니
다.
- 그만큼 세상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것
입니다.

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란 말은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은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 '해치말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디케
오>인데 이는 '손상시키지 말라', '잘
못 행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 그만큼 세상의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생필품에 대한 것만큼은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 이는 사람들에게 '화평'이 없어짐으로써 미움과 싸움과 죽음과 전쟁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입니다.

- 이 세상에 미움과 싸움과 죽음과 전쟁이 없어지면 물가도 자연히 안정세를 찾을 것입니다.
- 하지만 마귀는 세상으로 하여금 미움과 싸움과 죽음과 전쟁이 끊이지 않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만드신 평화로운 세상을 가만히 놔둘 마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싸움과 죽음과 전쟁이 없어져야 합니다.

- 사람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마음이 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 돌이켜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의 마

음에 얼마나 남에 대한 미움이 있으며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우리의 마음에 먼저 '화평'이 임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롬 12:18).

[롬 12: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4) 넷째 인(계 6:7-8)

가. 주님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또한 상징인데요 세상의 모습이 청황색으로 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 '청황색'이라는 단어는 <클로로스>인데 이는 '누른빛의 푸른색'을 뜻합니다.
- 이 단어는 병든 사람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병든 사람의 모습이 마치 누른빛의 푸른색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청황색 말'은 세상에 질병과 죽음이 가

[계 6:7]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계 6:8]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득차 있음을 뜻합니다.

-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이 땅도 영원할 땅이었으며 인간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마귀가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오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듦으로 인해 인간은 점차적으로 병들과 죽게 되었습니다.

다. '청황색 말'을 탄 자의 뒤에 '음부'가 따릅니다(계 6:8).

-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사망을 가져옵니다(롬 6:23).

라. 성경은 "... 저희가 땅 사분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8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 저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사망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

[계 6:8]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으로써 죽이더라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고 있습니다.

- 청황색 말을 탄 자에게 붙잡히는 자는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죄의 사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죄가 없는 세상. 죄를 짓지 않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상입니다.

5) 다섯째 인(계 6:9-11)

가. 주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가 나타났습니다.

- 세상에 기근이 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세력의 공격이 극심화될수록 순교자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 왜냐하면 마귀의 세력이 점점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는 마귀를 대

[계 6:9]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계 6:10]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계 6:11]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 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적하는 자들이며 하나님 편에 선 자들입니다.

나. 순교자들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 끝까지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믿음을 배반치 않는 자들입니다.
- 짐승은 절하지 않는 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계 13:15).

다. 사도요한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킨 자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 또한 저들은 '저희의 가진 증거'를 굳

[계 13:15]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게 지킨 자들입니다. '저희의 가진 증거'는 곧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저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라. 순교자들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순교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피를 신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 이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흘린 피에 대한 신원을 갚아 주셨듯이 이 땅의 모든 순교자들의 피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사 61:2).

마. 주님은 모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모든 순교자의 피를 갚아 주실입니다(계 6:10).

-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닌 자들을 말합니다.
- 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구세주로

[사 61:2] 여호와 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계 6:10]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며 짐승에게 절하는 자들입니다.

바. 주님은 모든 순교자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저들로 하여금 '흰 두루마기'를 입게 하실 것입니다(계 6:11).

- '흰 두루마기'는 '흰 옷'을 의미합니다. '흰 두루마기'는 <스톨레 류케>로 <스톨레>라는 단어는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 '흰 두루마기'를 입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순교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은 모든 순교자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저들로 하여금 왕 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계 20:4).

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점점 악으로 가득차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섯째 인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 어떤 사람은 벌써 다섯째 인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악한 자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계 6:11]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 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 우리는 주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악한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 이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주님을 구세주로 삼는 스스로의 증거를 위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죽임이 저들의 생을 끊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 어쩌면 저들처럼 우리들도 순교의 자리에 임하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 드려야 할 목숨이니 저들처럼 순교자가 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순교자들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며 주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잠시 쉬을 가질 것입니다.

6) 여섯째 인(계 6:12-17)

[계 6:12]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계 6: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계 6: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계 6: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계 6:16]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계 6: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가.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땅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 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12-14절). 이는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나. 세상의 마지막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요 2:31).

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대한 증거를 주실 때에 요엘 선지자가 한 말처럼 예언하셨습니다(마 24:29).

라. 사도요한이 바라 본 여섯째 인의 징조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며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요 2:31]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마 24: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 그 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히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들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계 6:15-16).

- 이들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은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무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전혀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에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골 2:32).

7) 일곱째 인(계 7:1-3)

가.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여섯째 인과 일곱

[계 6: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계 6:16]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골 2:32]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째 인이 떼어지는 사이를 말합니다.

- 요한계시록 7장은 일곱째 인이 떼어

구분	해당 장	요한계시록 핵심 내용 분해
일곱 인	6장	일곱 인에 대한 설명(1)
	7장 1-3절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는 사탄에 대한 설명(1)
	7장 4-17절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과 천국의 모습(1)
일곱 나팔	8-11장	일곱 나팔에 대한 설명(2)
	12-13장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는 사탄에 대한 설명(2)
	14장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과 천국의 모습 (2)
일곱 대접	15-16장	일곱 대접에 대한 설명(3)
	17-18장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는 사탄에 대한 설명(3)
	19장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과 천국의 모습(3)
세상 끝	20장	주님의 재림 때 사탄의 불잡힘 / 복천년 / 심판에 대한 설명
	21-22장	천국의 삶에 대한 설명

지기 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모든 재앙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일곱번째 인에서 다시금 '일곱나팔'로 전개되어 세상의 재앙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나. 요한계시록에는 7장과 같은 내용이 세차례 나옵니다.

- 7장에서 한번 나오고 14장과 19장에

[계 7:1]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 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계 7:2]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계 7:3]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는 똑 같은 장면들이 반복해서 설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7장보다는 14장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14장보다는 19장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똑 같은 세상에 임할 크고 두려운 날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며 '일곱 인'보다는 '일곱 나팔'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일곱 나팔'보다는 '일곱 대접'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보다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라. '일곱 인'의 내용은 '일곱 나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 '일곱 인'의 내용은 '일곱 나팔'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펼쳐놓고 있으며 이러

한 방식으로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일곱 인' 안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 다만 '일곱 나팔'을 읽을 때 '일곱 인'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고 '일곱 대접'을 읽을 때 '일곱 나팔'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일곱 나팔

1) 첫째 나팔(계 8:6-7)

가. 드디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 나팔은 순차적으로 불어졌습니다. 각 나팔이 불어질 때마다 이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 처음 네개의 나팔은 자연계를 향해 재

[계 8:6]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계 8: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버리고 각 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양이 임하였지만 나머지 세개의 나팔은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 처음 네개의 나팔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도록 임하는 재앙입니다.

다. 이 땅에 그러한 재앙이 임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녕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라. 모세 때에도 애굽에 재앙이 임했듯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앙이 임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마. 첫째 나팔이 불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땅의 1/3 이 타버리고 수목의 1/3 도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바. 첫째 나팔 때 임하는 재앙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에 대한 재앙입니다. 마귀의 본거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며 땅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근거지가 되는 땅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계 8: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계 8:9]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지더라

2) 둘째 나팔(계 8:8-9)

	재앙	재앙이 임했던 이집트의 신들	관련성구
1	물이 피로 변함	나일강의 수호신 크눔(Khnum) 하피(Hapi)	출 7:14-25
2	개구리	부활과 다산(多産)신 헤크트(Heqt, 크눔의 부인)	출 8:1-15
3	이	흙의 신 셉(Seb), 곤충의 신 케퍼(Kheper)	출 8:1-15
4	파리	파리의 신 바알세불(Beelzebub, 에그론 도시도 이 신을 섬겼다)	출 8:20-32(마 12:24)
5	가축의 악질	신성한 황소의 신 아피스(Apis, 내세를 약속했다)와 므네비스(Mnevis), 암소의 수호신 하도르(Hathor)	출 9:1-7
6	독종	주술과 치료의 신 토트(Thoth)	출 9:8-12
7	우박	창공의 여신 누트(Nut), 대기(大氣)의 신 수(Shu)	출 9:13-35
8	메뚜기	곡물의 신 셋(Seth)	출 10:1-20
9	암흑	태양의 신 라(Ra), 태양의 여신 세케트(Sekhet)	출 10:21-29
10	초태생의 죽음	생명을 부여하는 신 오시리스(Osiris), 생명을 수호하는 신 이시스(Isis), 지상의 태양신 바로(Pharaoh)	출 11:4-12:30

가. 둘째 나팔이 불 때에 바다의 1/3 이 피
가 되어 바다 생명체의 1/3 이 죽고 선박
의 1/3 이 깨어졌습니다.

나. 둘째 나팔 때 임하는 재앙은 바다에 대한
재앙입니다. 바다는 악한 세력이 득실거
리는 곳이며 사람들은 바다 신을 두려워
했습니다. 둘째 재앙은 바다 우상들에 대
한 재앙인 것입니다.

3) 셋째 나팔(계 8:10-11)

가. 셋째 나팔이 불 때에 강들과 샘물의 1/3
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 셋째 재앙은 물에 대한 재앙입니다. 물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
람들은 물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잘못된

[계 8:10]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
지니
[계 8:11] 이 별 이름은
쓰썩이라 물의 삼분의
일이 쓰썩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생각을 별하시기 위해 물에 대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4) 넷째 나팔(계 8:12-13)

가. 넷째 나팔이 불 때에 해와 달의 1/3 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 이러한 네 가지 재앙을 자세히 살펴 보면 한결같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은 모두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파쇄하셨던 것입니다.

나. 넷째 재앙은 빛에 대한 재앙입니다. 사람들은 빛이 없으면 살기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별하시고자 빛에 대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계 8:12]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삼분의 일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계 8:13]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 다행히 이러한 재앙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재앙들의 조짐은 이미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1/3 이나 되는 광범위한 재앙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 하지만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 주님께서 모든 인 맞은 자들을 다 모을 때까지는 잠시 기간이 남아 있겠으나 속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5) 다섯째 나팔(계 9:1-3)

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은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입니다.
-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화'는 모두

[계 9: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계 9:2]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계 9:3] 또 함종이 연기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세 개입니다.

- 이 세가지 화는 가장 큰 재앙을 뜻합니다. 모든 재앙이 끔찍한 것이지만 특별히 세가지 화는 더욱 끔찍한 것입니다.
- 하지만 세가지 화는 모두 믿지 않는 자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요한계시록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통해 내용이 반복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 줍니다(계 7:1-3, 계 12-13장, 계 17-18장).

-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계 12:9).

다. 사탄은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이 인간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고 사탄은 마음껏 이 세

[계 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상에 재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라.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서 무저갱을 열 때에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그곳으로부터 황충이 땅 위에 나올 것입니다. 황충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계 9:3).

마.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떼는 땅의 수풀과 수목을 송두리채 먹어 치우는 무서운 곤충입니다.

- 이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저들을 통해 수많은 인간이 고통을 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인 맞지 않는 사람만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계 9:4-6).

바. 하나님은 황충에게 이르시길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계 9:3] 또 황충이 연기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계 9:4]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 9:5]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신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계 9:6]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4절)고 명하셨습니다.

- 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입니다.
- 이미 하나님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회를 줄 만큼 주셨습니다.
-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탄에 의해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저들이 살고 있는 땅도 고통을 당해야 하고 저들 스스로도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 하지만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을 해하지 말라 당부하신 것입니다.

사.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 전에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이십니다. 인 맞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땅에 풀과 수목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황충이 인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않는 사람들은 실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 그들의 당하는 고통이 어찌나 큰지 저
들 스스로 죽고자 할 정도입니다. 하
지만 저들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
되 죽음이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 하나님은 인 맞지 않는 자들의 당하
는 기간을 '다섯 달 동안'으로 정하셨
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다섯 달 동
안을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 하나님의 인 맞지 않는 자들은 지극히
짧은 기간 동안(다섯 달 동안) 황충으
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 9:7-10).

자. 5개월에 대한 해석

- 문자적인 해석: 다섯 달은 실제 시간
의 5개월을 의미한다고 보는 관점입
니다. 이 경우, 이는 미래에 일어날
실제 기간을 나타낸다고 해석됩니

[계 9:7] 황충들의 모양
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
한 말들 같고 그 머리
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계 9:8] 또 여자의 머
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
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계 9:9]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
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
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계 9:10] 또 전갈과 같
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
는 권세가 있더라

다.

- 상징적인 해석: 다섯 달이 특정 기간을 상징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해석에서는 다섯 달이 완전하지 않은 기간, 즉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 역사적인 해석: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다섯 달이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기간을 상징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경우,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지어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 신학적인 해석: 메뚜기 떼가 다섯 달 동안 괴롭히는 기간을 악의 세력이 제한된 기간 동안 활동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차.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황충의 모습은 마치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과 같았습니다.

- 그들의 머리는 마치 면류관과 같은 것을 썼으며 그들의 얼굴은 마치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 이러한 황충의 모습은 실제로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매우 지혜롭고 자신들이 해야 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 그들에게 면류관 같은 비슷한 것이 씌어졌다는 것도 저들이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할 때에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사도요한은 황충의 모습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 털이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긴 머리털은 저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강력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삼손의 힘이 긴 머리칼에서 비롯된 것처럼 저들의 긴 머리털은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을 마음껏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하

고 있습니다.

카. 사도요한은 계속해서 황충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사자의 이처럼 생긴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철홍갑 같은 홍갑이 있고 저들의 날개소리는 거대한 말들의 말굽소리처럼 들렸으며 전갈과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 이러한 모든 표현은 황충에게 부여된 권세가 지극히 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 그 누구도 황충이 인 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 여섯째 나팔(계 9:13-19)

가. 여섯째 나팔이 불어질 때 유브라데 강에 결박당하고 있었던 네 천사가 놓임을 받게 됩니다(계 9:13-14).

- 여섯째 나팔은 '두번째 화'입니다.

[계 9: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계 9:14]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 두번째 화 역시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나. 하나님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나팔을 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 여섯째 나팔이 불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시면 결코 여섯째 나팔은 불어질 수 없습니다.
- 이 네 천사는 이 땅의 사람 중 1/3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입니다(계 9:15).
- 성경은 네 천사가 이끄는 마병대의 수가 "이만 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계 9:16). 이는 2억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라기 보다는 그 수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이라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게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많은 네

[계 9:15]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계 9:16] 마병대의 수는 이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천사의 군대가 이 땅의 사람 중 1/3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은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네 천사가 이끄는 마병대의 모습이 자주 빛과 유황빛을 띄면서 그 흉갑에서 불빛이 나고 말들의 머리가 사자 모습인데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불이 나옵니다(계 9:17).

- 이러한 마병대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떨어진 불과 유황을 연상케 합니다. 이 세 가지 재앙, 곧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 1/3을 죽이는 것입니다(계 9:18).
- 사도요한은 마병대의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꼬리는 뱀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계 9:19).
- 이러한 모습은 언뜻 전갈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저들의 꼬리가 '뱀같다'

[계 9:17] 이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계 9:18]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리라

[계 9:19]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는 것은 저들이 사탄의 일을 행하는
무리들임을 알게 해 줍니다.

라. 마병대의 공격에 의해 이 땅의 사람 1/3
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여전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치 않습니다(계 9:20-21).

-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그런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앙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 만일 그들에게 닥친 재앙이 하나님의 인 맞지 않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라고 그 사실을 바로 깨닫는다면 왜 저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재앙을 당하고 나서도 여전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에 대해 죄라고 인식하지도 않으며 회개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계 9:20]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계 9:21]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울테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은 죽어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며 큰 복입니다.

마. 여섯째 나팔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계 11:1-2).

- 이 내용은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환난의 기간은 '3년 반'이 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입니다.
- 현재 기독교인이 당하고 있는 세상의 핍박은 '3년 반'에 해당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다시한번 성도들이 '3년 반'동안 사탄의 핍박을 받

[계 11:1]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도
[계 11:2]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 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을 것이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계 12:6).

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힘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성도들도 더럽힘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 하나님은 사탄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성도를 찾으시기 위해 천사를 통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십니다(계 11:1).
- 하지만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않습니다(계 11:2). 이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 사도요한이 척량했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성전'은 헬라어 <나오스>인데 이는 일반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제단'은 성소 앞

[계 12: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천이백육십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 11:1]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계 11:2]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 땅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에 위치한 '번제단'이나 '분향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 땅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성전을 통해 밀과 가라지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성전에는 오직 '이기는 자'만이 거하는 곳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 하늘에서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 이 땅에서의 성전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 거하시며 성전에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 오늘날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고전 3:16).

-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이며 사도요한의 갈대는 이러한 자를 척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자와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는 갈대로 척량 받을 것입니다.

아. 하지만 성전 밖 마당에 거하는 자들은 '가라지'로 척량될 것입니다(계 11:2).

-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로 구분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을 하고 교회를 위해 정성을 다해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성전 밖 마당에 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헌금으로 교회 건물을 지은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

[고전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 11:2]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나눔을 경배하는 자로 인정받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 이는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계 11:2). 그리고는 저들은 이방인처럼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은 천국에 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은 천국 밖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 이러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게 될 것입니다.
- '거룩한 성'은 천국에 있는 거룩한 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의미합니다.

[계 11:2]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 이 땅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성전'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전'은 성도인 우리들 자신이며 성도가 함께 모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방인은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차. 하나님은 참 경배자 중에서 두 증인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파송합니다.

-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했습니다 (계 11:3).
- 두 증인의 예언은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거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막 16:16).
-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계 11:4). 감람나무와 촛대는 성령의 기름부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만들어지고 그 기름으로 촛대는 빛을 냅니다.

[계 11: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막 16: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계 11:4]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부음입니다.

카. 두 증인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눅 9:1-2).
- '두 증인'은 곧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경배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두 증인은 성도와 교회를 의미합니다.
-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호해 주십니다(계 11:5).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타. 두 증인이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계 11:7).

- '두 증인'이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삼 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저들 속에 들어갑니다(계 11:11).

[눅 9: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눅 9:2]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않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계 11:5]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계 11:7]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계 11:11]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 이는 마치 하나님의 '생기'가 흠으로 빛은 아담에게 들어갔더니 아담이 '생령'(Living Being)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 죽었던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창 2:7).
- 하나님께서 짐승의 핍박으로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을 살리시고 하늘로 올라오게 하십니다(계 11:12).

파. 두 증인이 죽음에서 살아나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로 들리어 올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가리켜 '휴거(Rapture)'라고 말합니다.

- 모든 '이기는 자'가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성도들이 휴거가 될 것입니다.
-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을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구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세상의 1/10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계 11:12]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계 11:13] 그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 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될 것입니다(계 11:13).

-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살전 4:16).
-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들리워 올려지는 성도들을 볼 때에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계 11:13).
-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고 이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는 징조가 바로 여섯째 나팔의 끝을 의미합니다.
- 이것은 곧 둘째 화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계 11:14). 여섯째 나팔의 징조는 곧 둘째 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7) 일곱째 나팔(계 11:15-17)

가.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불어졌습니다. 그동안 여섯 나팔이 불어질 때에 이 땅은

[살전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계 11:13] 그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계 11:14]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계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 11:16]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십사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계 11:17]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수많은 재앙들로 황폐해지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 이제 그 재앙들이 모두 끝이 나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 주님께서 모든 나라와 사람들의 왕이 되셔서 친히 왕 노릇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계 11:15).
- 일곱번째 나팔은 '세번째 화'를 의미합니다. 세번째 화 역시 믿지 않는 자에게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 보좌에 앉은 이십사 장로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계 11:16). 이러한 이십사 장로들의 모습은 이미 요한계시록 4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계 4:10).

- 이 땅의 모든 재앙이 끝나고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두 하나님께 붙잡힘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며 온 백성과 천사와 이십사 장로들이 주님께 엎드려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경배하게

[계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 11:16]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십사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계 4:10]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될 것입니다.

- 지금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고난 당하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기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사망과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 부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5. 일곱 대접

1) 첫째 대접(계 16:1-2)

가. 마지막 세상에 임하는 재앙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일곱 대접' 형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의 재앙이 '대접' 형식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재앙이 부어지는 듯한 형식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계 16:1]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계 16:2]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나. 세상의 마지막 재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입니다.
- 이처럼 세상의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은 모든 재앙들이 마귀의 자녀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 일곱 대접에 의해 내려진 일곱가지의 재앙을 살펴 보면 모두다 마귀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첫번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계 16:2).

-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악하고 독한 헌데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 '헌데'는 헬라어 <헨코스>로서 '독종'이나 '악창'을 의미합니다.

[계 16:2]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 이러한 증상은 애굽에 임하였던 여섯 번째 재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 첫번째 대접의 재앙이 '헌데'라는 것은 대접의 재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 둘째 대접(계 16:3)

가. 두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을 것입니다.

- 바다가 피 같이 변하게 되는 재앙은 애굽에 임하였던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 애굽에 임하였던 재앙은 애굽의 하수가 피로 변해 하수의 모든 고기들이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남으로 인해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출 7:20-21).

나. 둘째 대접의 재앙은 둘째 나팔의 재앙과

[계 16:3]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출 7:20]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출 7:21]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거의 비슷합니다.

- 둘째 나팔의 재앙 때에 바다 피조물 가운데 1/3에 임하였던 것에 비해 둘째 대접은 모든 마귀의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 지 모르지만 둘째 나팔 때에 임한 1/3의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다. 이러한 둘째 대접의 재앙 역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 하지만 바다가 피 같이 변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 마지막 재앙은 순식간에 이뤄지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때가 긴 기간은 아닐 것입니다.
-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일 것이며 주님의 재림에 의해 모든 고난은 끝이 날 것입니다.

3) 셋째 대접(계 16:4-6)

가. 셋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애굽의 나일 강과 애굽의 모든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한 재앙과 같습니다(출 7:17-21).

- 셋째 대접의 재앙은 셋째 나팔의 재앙과 거의 비슷합니다.
- 다만 셋째 나팔 재앙 때는 1/3의 물이 쓰게 되었을 뿐이지만 셋째 대접은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심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 사람들은 물을 찾아 헤맬 것이며 더러운 물이라도 마시려고 할 것입니다.
- 그래서 사람들은 피로 변한 물조차 마시려 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물을 피로 만드신 까닭은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계 16:4]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계 16:5]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계 16:6]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출 7:1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불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출 7:18]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출 7:1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출 7:20]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6절)입니다.

- 하나님은 모든 마귀의 자녀들로 하여금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죄악을 저들 스스로 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갚으시려는 것입니다.

라. 이러한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마실 수 있는 물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 마치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듯이 실제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를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4) 넷째 대접(계 16:8-9)

- 가. 넷째 대접의 재앙은 해가 불로 변하여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넷째 나팔의 재앙과 거의 비슷합니다.
- 넷째 나팔 때에는 해와 달과 별의 빛

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출 7:21]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계 16:8]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계 16:9]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1/3 잃어버리는 재앙인 반면에 넷째 대접 때는 해가 불로 변하여 사람을 태우는 재앙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팔의 재앙이나 대접의 재앙 모두 마귀의 자녀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나. 나팔 때의 재앙은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여서 주로 이 세상의 1/3에 해당되는 부분만 재앙이 임하도록 하였고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막으셨듯이 대접 때의 재앙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집중되어 내려지는 재앙입니다(계 16:2).

- 일곱 대접 재앙 역시 그 대상은 마귀의 자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 재앙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계 16:9).

[계 16:2]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계 16:9]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5) 다섯째 대접(계 16:10-11)

가.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부어졌습니다. 짐승의 보좌에 재앙이 쏟아짐으로 이 세상 나라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는 것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짐승에게 속한 자들에게 임한 재앙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임한 재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다섯째 대접의 재앙은 이 세상의 빛이 어두워지는 재앙입니다.

- 이러한 재앙은 애굽에 내린 아홉번째 재앙과 비슷합니다(출 10:21-23).
-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빛을 없애시고 암흑만 있게 하신 것은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태양신에 대한 재앙이었습

[계 16:10]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계 16:11]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출 10: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출 10:22]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삼 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출 10:23]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니다.

- 다섯째 대접의 재앙을 통해 이 세상이 빛을 잃어 버리고 암흑으로 덮혀진 이유는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다. 다섯째 재앙으로 쏟아진 암흑의 재앙이 극심한 고통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을 정도였습니다(계 16:10).

-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훼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계 16:11).

라. '하나님을 훼방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을 의미합니다.

- '훼방한다'는 헬라어 단어 <블라스페메오>는 '중상하다', '비방하다', '모독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 16:10]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계 16:11]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죄값을 '신성모독'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으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죄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 이 '훼방하다'란 단어는 성령을 훼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2:32).
- '신성모독'하는 자들이 진작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이미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회개치 않는 까닭은 저들이 지은 '신성모독'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 하나님의 재앙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질 때 저들 또한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죽고 싶은 마

[마 12: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다하는 때까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훼방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 9:6).

6) 여섯째 대접(계 16:12-16)

가.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테 강에 쏟아집니다. 그랬더니 유브라테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마른 강물 땅을 통과하여 서방의 왕들과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 저들이 하나로 뭉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계 16:14).
- 사탄은 이미 자신의 멸망할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모든 그의 추종자들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입니다.

나. 여섯째 대접에서 '유브라테 강'이 등장하듯이 여섯째 나팔에서도 '유브라테 강'이 등장합니다.

[계 9:6]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은 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계 16:12]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계 16:13]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계 16:14]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 16:15] 보라 내가 독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 16:16]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 다만 여섯째 나팔에서는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었던 네 천사가 풀려나 이 세상 사람 1/3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계 9:14-15).
- 하지만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질 때에는 사탄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함께 모이게 됩니다(계 16:14).

다. 이미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패한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의 집요한 성격은 그가 '사탄'임을 증명해 줍니다(계 12:7-9).

라. 오늘날에도 집요한 성격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잃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가담합니다.

-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에 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계 16:14]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 9:14]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계 9:15]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계 16:14]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계 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 이렇듯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 성경은 사탄의 삼위일체를 통해 귀신의 영이 나와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케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귀신의 영은 사탄의 삼위일체로부터 나왔습니다(계 16:13).
- 귀신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온 세상의 임금들을 유혹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계 16:14).

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는 '아마겟돈'입니다(계 16:16).

- '아마겟돈'의 원래 히브리 음역은 <하르 므깃도>입니다. <하르>라는 단어

[계 16:13]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계 16:14]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 16:16]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는 '작은 산'이라는 뜻이므로 <하르
므깃도>는 '므깃도 산'을 가르킵니다.

- <므깃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다
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단
어의 뜻은 '군대를 소집하다'라는 뜻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명사형으
로 고칠 때 <가다드>라는 단어 앞에 <
마>라는 접두어를 붙어게 되어 <마게
드>가 되는데 이는 "군사를 소집하는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접미
어 <오>를 붙여 <마게돈>이 되면 이
는 '군대를 소집하는 장소'가 됩니다.
따라서 '아마겔돈'이라는 단어는 하
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사탄의 모든
세력이 집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
다.
- 이는 그 장소가 실제 장소일 수 있지
만 그 보다는 사탄의 세력이 함께 모
일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 사탄의 세력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하나님과의 전쟁은

이 세상에서 이뤄집니다.

- 이미 하늘에서 전쟁을 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땅에서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할만
한 장소는 어느곳일까요?
- 그곳은 어느 한 지역이나 장소가 아닌
보다 폭 넓은 공간일 것입니다. 어찌
면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
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하나로 뭉치
려고 합니다.

- 이미 바벨탑 때부터서 하나로 뭉치려
는 작업이 시작되어져 왔습니다.
- 사탄이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려
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
님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로 뭉치는 것
이 아닙니다.

차. 하늘 전쟁에서 패한 사탄은 이 땅에 쫓겨
난 이후 줄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만

온 집중을 다 쏟았습니다.

- 가장 먼저 사탄은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창 6-9장) 사건으로 인해 애써 길러 놓은 이 세상 대적자들이 한꺼번에 몰상 당하고 말았기에 더 이상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을 그만두고 '니므롯'이라는 이 세상의 영걸을 택하여 그로 하여금 바벨에 탑을 세우게 하였던 것입니다.
-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탑을 세우게 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목적을 갖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일에 함께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에 의해 흠어지는 일이 없게 하려 했습니다.
-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저들을

온 세상 지면에 흠으셨던 것입니다
(창 11:8-9).

-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하루아침에 바벨탑이 무너지고 난 후에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서 어떻게 하든지 그 방법을 찾고 연구하며 추진해 갔던 것입니다.
- 오늘날 사탄은 또 다시 바벨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신 바벨탑'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탑을 쌓게 하면서 다시는 흠어지지 말 것을 다짐케 하고 있습니다.
- 사탄은 오늘날의 과학과 문명을 이용하여 매우 신속하게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브라테강이 이미 말랐습니다. 동방의 왕들이 서방의 왕들과 신속하게 만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춰 놓은 것입니다.
- 오늘날 세상은 하루만에 전 세계를 누

[창 11: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 11: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

사탄

**하늘전쟁에서 패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려 한다**

원래 천사였던 사탄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켰지만
하늘전쟁에서 패하고 이 땅에 쫓김을
당하고 만다(계 12:7-9).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다.

니므롯

**사탄의 앞잡이
(세상의 영걸)**

함의 손자 니므롯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영걸"이라는 호칭을 받았으며(창 10:8),
사날링지에 바벨탑을 쌓게 하여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하였다(창 11:4).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창 11:7]



바벨탑

"자, 성(City)과 대(Tower)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창 11:4)



신바벨탑

"[계 18:2] 함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짐승

사탄의 권세수여자

사탄은 짐승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고(계 13:1-10),
짐승은 그가 가진 권한을 통해 거짓선지자에게
세상을 손아귀에 넣도록 하였으며
적그리스도를 세상 곳곳에 두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있다.

사탄

**사탄은 신바벨탑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

사탄은 또 다시 계속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연합하도록
유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연합기구를 만들도록 인도하고 있다.

빌 수 있는 과학을 가지고 있어서 하
나님의 대적자들이 아주 신속하게 모
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행기
같은 과학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이라는 과학 기술을 통해 한
날 한 시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놓은 것입니다.

7) 일곱째 대접(계 16:17-21)

가. 일곱째 대접은 공기 가운데 쏟아질 것입
니다. '공기'라는 말은 '이 세상'을 의미합
니다. 이는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입니다(엡 2:2).

나. 일곱째 대접이 이 세상에 쏟아질 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왔습니
다(계 16:17).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주님은 일곱째 대접을 이 세상에 쏟아
질 때에 "... 되었다..."(17절 하)고 말
씀하셨습니다.
- '되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게고넨>
으로 '성취하다' 또는 '완성하다'의 뜻
입니다.
- 주님께서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계 16:17] 일곱째 천사
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
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계 16:18] 번개와 음성
들과 우렛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열
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계 16:19]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
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
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
도주 잔을 받으며
[계 16:20] 각 섬도 없
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계 16:21]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
람들에게 내리매 사람
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
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엡 2:2] 그 때에 너희
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은 이 세상의 재앙이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일곱 대접은 이 세상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입니다(계 15:1).

다. 주님은 일곱째 대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을 종결시키실 것입니다.

- 그 재앙의 끝은 곧 사탄의 멸망이며 사탄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 사탄의 나라인 이 세상도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라. 일곱째 대접이 이 세상에 쏟아질 때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을 것입니다(계 16:18).

- 이러한 증상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증상들과 함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지진으로 이 세상의 모든 도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계 16:17]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계 15:1]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계 16:18] 번개와 음성들과 우렛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니다.

-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 지진으로 인해 온 세상의 도시가 무너지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질 것입니다(계 16:20).

[계 16:20]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마. 또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거대한 우박이 세상에 떨어져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 '달란트'의 무게는 대략 60~100파운드(대략 30kg~50kg)정도입니다. 우박에 의해 죽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 이러한 자들은 모두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에게 경배한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 끝하나 다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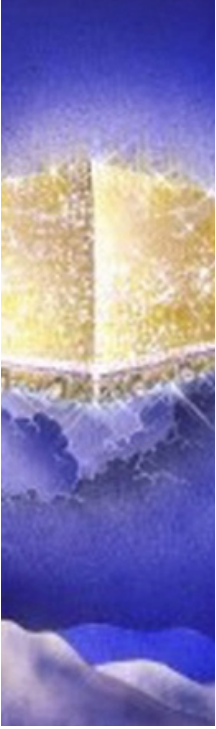
요한계시록 사건별 설명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www.RevivalForChurch.com)

일곱인 (제 6장)			마귀세력 심판 (제 17-18장) (제 20:1-3)	첫째부활 & 복천년 (제 20:1-6)	곡과 마귀의 전쟁 (제 20:7-10)	부활 & 백보좌 심판 (제 20:11-13)	거룩한성 (새예루살렘)
일곱나팔 (제 8-11장)							천국 (제 21-22장)
일곱대접 (제 15-16장)							지옥(불못) (제 20:14-15)

인 본 문 책	첫째인	흰 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깨끗한 세상이 없어지고 점점 사탄의 활동에 의해 더러워지는 모습이 나타난다(제6:2).
	둘째인	붉은 말, 세상을 전쟁으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려는 사탄의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제6:3-4).
	셋째인	검은 말, 경제적인 공황으로 더욱 세상을 어렵게 만들것이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제 6:5-6).
	넷째인	청황색 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커지고 강력해짐으로써 세상의 25%를 죽음으로 몰아간다(제 6:7-8).
	다섯째인	사탄으로 압박 받는 성도들이 많아진다. 이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말씀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제 6:9-11).
	여섯째인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쳐렷, 별들이 떨어지고, 산과 섬이 움직이며,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제 6:12-17).
	사탄의세력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은 이 땅에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제 7:1-3).
	인맞은백성	인맞은 사람(144,000명)과 천국백성이 주님을 경배한다(제 7장).
일곱째인이 떠어질때 일곱 나팔이 울렷파진다	첫째나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세상의 1/3을 태워버린다(제 8:7).
	둘째나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를 피로 만들고 바다의 생물과 선박의 1/3이 죽고 부서진다(제 8:8-9).
	셋째나팔	햇빛같은 큰 벌(쑥이라고 불려움)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 1/3의 물이 쓰게 된다(제 8:10-11).
	넷째나팔	해, 달, 별의 1/3이 어두워 저서 낮의 1/3이 빛을 잃는다(제 8:12).
	다섯째나팔	무저갱 열쇠를 받은 별이 떨어지고, 황충들이 다섯달동안 사람들을 해하지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해하지 않는 다(제 9:1-12).
	여섯째 나팔	네 천사들이 이끄는 마병대가 인류의 1/3을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인다(제 9:13-21).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 중에서 휴거되는 사람이 있다(제 11:1-14).
	사탄의세력	사탄은 천국에서 쫓김을 받아 이 땅에 기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한다(제 12-13장).
	인맞은 백성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144,000명이 사온산(거룩한성)에서 주님을 경배한다(제 14장).
일곱째 나팔이 들어질 때 일곱대접이 부어진다	첫째대접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에게 경배한 자들 위에 역병이 생기는 재앙이다(제 16:1-2).
	둘째대접	대접이 바다(지중해)에 쏟아지니 모든 살아 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는다(제 16:3).
	셋째대접	강들과 물은 피로 변했다. 사람들이 순교자의 피를 먹도록 했다(제 16:4-7).
	넷째대접	대접이 해에게 떨어지는데, 해가 강한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제 16:8-9).
	다섯째대접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자 자들이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뺨박하고 회개지 않는다(제 16:10-11).
	여섯째대접	유브라데강이 마르고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벌이게 된다(제 16:12-16).
	일곱째대접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번개, 뇌성, 지진, 우박으로 완전히 멸망을 시킨다(제 16:17-21).
	사탄의세력	주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신다. 사탄의 무리(사탄, 짐승, 거짓신자)가 불잡힘을 받아 유황불못 에 떨어진다(제 14:14-30, 제 17장, 제 19:11-21). 주님께서 사탄의 무리들을 1000년 동안 무저갱 속 에 가둬둔다(제 20:1-3).
인맞은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뻐한다(제 19장).	
첫째부활과복천년	주님의 믿음을 지닌 자들과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을 하고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고(천년) 복천년이 이뤄진다(제 20:4-6).	
곡과마귀의 전쟁	복천년이 끝날때 잠시 사탄이 풀려나고 사탄은 백성을 미혹하며 '곡과 마귀'간의 전쟁을 벌인다. 하지만 사탄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영 원히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제 20:7-10).	
부활과심판	모든 사람, 사탄을 따르던 모든 추종자들이 모두 부활하여 백보좌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제 20:11-15).	
천국과지옥	새하늘과 새땅(천국)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거룩한성이 내려온다(제 21:1-2). 거룩한성은 12전주문이 있고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고 보좌가 있고 그곳에서 생수강이 흐르며 생명나무가 있다(제 21-22장). 거룩한성에는 성전이 없으나 천국에는 성전 이 있어서 천국백성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한다(제 21:3-4).	





6 장

/

짐승의 표 누가 받는가?

제 6 장 짐승의 표는 누가 받는가?

훈련 목적

- *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 이해한다
- * '이기는 자'에 대해 이해한다
- * 요한계시록의 재앙에 대해 이해한다
- * 세상의 종말과 천국에 대해 이해한다
- *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 요한계시록을 일독한다
- * '이기는 자' 서적을 읽고 체험일지 쓴다

1. 짐승의 표는 누가 받는가?

1)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시대는 세상의 끝입니다.

가. 예수께서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

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때에 재난의 시작이라 말하셨습니다(마 24:7-8).

나. 기독교인이 예수님때문에 세상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4:9).

다.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4:10).

2) 세상의 끝에는 거짓 선지자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마 24:11-12).

가. 거짓 선지자는 마귀와 짐승의 명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나. 거짓 선지자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다. 주님께서서는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스러

[마 24: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 24:8]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 24: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 24: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 24: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 24: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위할 우리를 생각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마 24:13).

[마 24: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3) 마귀는 짐승의 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가. 이처럼 마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파괴하기 위해 뛰어난 지혜를 마
음껏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미 마귀는 하나님을 상대로 싸울 생
각은 없습니다.
- 더 이상 하나님은 마귀가 상대할 분이
아니심을 마귀 스스로 알고 있습니
다.
- 또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상대로 싸
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이미 하늘 전쟁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나.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항
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장소는 이 세상뿐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하여금 세상에 서 왕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세상의 왕이 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하심입니다.

-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게 될 것입니다.
-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계 14:11-12).

4) 때가 되면 짐승이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가. 짐승은 모든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계 14: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그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 것입니다(계 13:16).

나.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계 13:17).

-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매매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음식을 살 수도 없으며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 이처럼 짐승의 표는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오를 사람과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5) 사도요한은 세상에 속한 자가 있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요일 5:19).

[계 13: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3: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요일 5:19]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가.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출현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 지금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나 준비 자세를 갖추지 않습니다.
- 마치 노아시대에 홍수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방주에 대해 어리석은 것이라고 조롱했던 것과 같습니다.
- 하지만 성경말씀은 일점일획이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나. 짐승은 이미 이 세상에 있으며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요일 4:3).

[요일 4: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2. 666의 의미는?

- 1)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케 하기 위해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계 13:15-18).

[계 13:15]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밋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환

난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계 13:17).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짐승의 표'를 가리켜 '육백육십육(666)'이라고 하는데 이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 이름의 수'입니다(계 13:17-18).

[계 13: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계 13: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2) 짐승의 표의 영적 의미는?

가. '666'은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수'이며 '사람의 수'입니다.

- '666'이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숫자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부터 나온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표가 아니라 짐승으로부터 받는 표라는 것입니다

다.

- 이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는 사람은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지만 짐승으로부터 표를 받는 자는 그의 주인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나. 또한 '666'은 '짐승의 수'입니다.

- '6'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의 숫자입니다. 이는 천국의 숫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 '666'이라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에 폭 빠져 살아가는 자는 그 자체가 이미 '666' 표를 받은 것입니다.
- 그는 결코 '666'표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이마에는 '666'표가 찍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가 자신의 이마에 '666'표가 찍혀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 하지만 이미 주님은 그가 '666' 짐승

의 표를 받은 자임을 알고 계십니다. 비록 그 사람이 교회예배에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미 '666'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다. 또한 '666'은 '사람의 수'입니다.

- '6'은 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수는 불완전한 수입니다. 불완전한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수억 명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 '666'이라는 말은 불완전한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는 의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을지라도 결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 정금등대의 촛대는 7개입니다. 가운데 촛대는 다른 6개의 촛대에 비해 큰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촛대가 6개만 있어도 빛을 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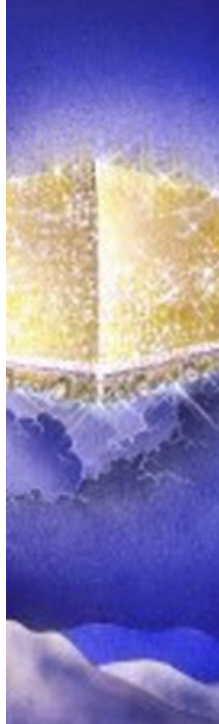
다. 6개의 촛대나 7개의 촛대나 빛을 내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촛대가 모여 있을지라도 주님의 촛대가 없으면 불 완전한 촛대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 빛이 화려하고 밝을지라도 의미없는 빛이며 그 빛은 어둠과 같은 빛입니다. 오직 주님의 빛이 함께 할 때 불 완전한 빛은 완전한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등대 촛대가 7개인 것입니다.

라. 당신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666'표를 받은 것입니다.

- 당신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666'표를 받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은 '666'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 '666' 짐승의 표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찍혀지고 있는 짐승의 표입니다.
- 누구든지 짐승과 함께 하는 자는 짐승

의 표를 받습니다.





7 장

/

마귀의 삼위일체

제 7 장 마귀의 삼위일체

훈련 목적

- *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 이해한다
- * '이기는 자'에 대해 이해한다
- * 요한계시록의 재앙에 대해 이해한다
- * 세상의 종말과 천국에 대해 이해한다
- *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 요한계시록을 일독한다
- * '이기는 자' 서적을 읽고 체험일지 쓴다

1. 재앙 집행자, 마귀

- 1)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앙을 내리기 위해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가.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찾기 위해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 이 세상에 내려진 재앙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을 내리기 위해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서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릴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 사람들은 마치 사탄이 세상의 재앙을 내릴만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지 못합니다.

2)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설명이 세 차례 반복해서 설명됩니다.

가. 사탄의 세력에 대한 설명이 '일곱 인', '일

곱 나팔', '일곱 대접'에서 연속적으로 반복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 '일곱 인'에서 첫번째로 사탄의 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계 7:1-3).
- '일곱 나팔'에서 두번째로 사탄의 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계 12-13장).
- '일곱 대접'에서 세번째로 사탄의 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계 17-18장).

3) 마귀는 누구인가?

가. '큰 용'은 곧 '옛 뱀'입니다. 그리고 그 '옛 뱀'은 곧 '마귀'이며 '사단'입니다(계 12:9).

- 성경에서는 마귀를 가리켜 '용(drago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이라는 다소 상징적인 단어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짐승인 '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 7:1]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 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계 7: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계 7:3]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 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 고대신화에서 악마를 가리킬 때 주로 ‘용’이나 ‘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 3:1).

나.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계 12:7-9).

- 마귀가 땅으로 내어 떨어질 때 그를 따르던 추종자의 세력들도 마귀와 함께 내어 쫓겨 났습니다.
-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눅 10:18),
- 마귀와 그 세력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을 때였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다. 사도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에 대한 언급을 기록했습니다.

- 그의 기록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대적하여 전쟁을 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계 12:7-8).

[창 3: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계 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눅 10: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 하늘에 있었던 전쟁은 천사장 미가엘의 승리였습니다. 결국 마귀는 하늘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4) 왜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났는가?

가.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사 14:12-14).

-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견주어 비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 이 얼마나 가증한 죄입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견주어 같은 위치에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 하지만 마귀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추악하고 가증한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 마귀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듯한 것이었습니다.

- 그의 교만이 얼마나 높았으면 “내가

[사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 14: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 의산 위에 앉으리라
[사 14: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지리라 하느니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무서워 하지 않았습니다.

- 자신의 뛰어난을 뽐내고 자랑하면서 날마다 커져가는 교만이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으로만 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습니다.

- 그래서 그의 이름은 계명성입니다. 이 사야는 마귀를 가리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사 14:12)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계명성’은 새벽별(Morning Star)을 뜻합니다. 이것의 라틴어가 루시퍼(Lucifer)입니다. 계명성이라는 이름은 매우 귀중한 존재를 알리는 이름이요 새벽별처럼 밝고 뛰어난 존재입니다.
- 예수님의 이름에도 계명성이라고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계 22:16). 하지

[사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 22: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니라

만 예수님은 단순한 새벽별이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이것이 마귀
의 ‘새벽별’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 그래서 단순히 새벽별이라고 하면 그
것은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예수
님을 가리킬 때는 반드시 ‘광명한 새
벽별’이라고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
다.

5) 교만은 누구라도 멸망시킵니다.

가.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
던 천사였지만 그의 인생은 비참해졌습
니다(사 14:11).

나. 하늘에서 떨어져 이 땅에 내려오게 된 마
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
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
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원
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사14:11] 네 영화가 스
올에 떨어졌음이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
더기가 네 아래에 깔림
이며 지령이가 너를 덮
었도다

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모든 잘못된 원인을 타인에게 돌립니다.

- 겸손한 사람은 그 잘못된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항상 타인의 잘못으로 자신을 합리화 시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 스스로는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타인이요 환경일 뿐입니다.
- 그래서 늘 교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안되었을거야”라고 말하거나 “이런 환경이 아니었더라면 잘 되었을텐데”라고 즐겨 말합니다.

라. 이 땅에 떨어진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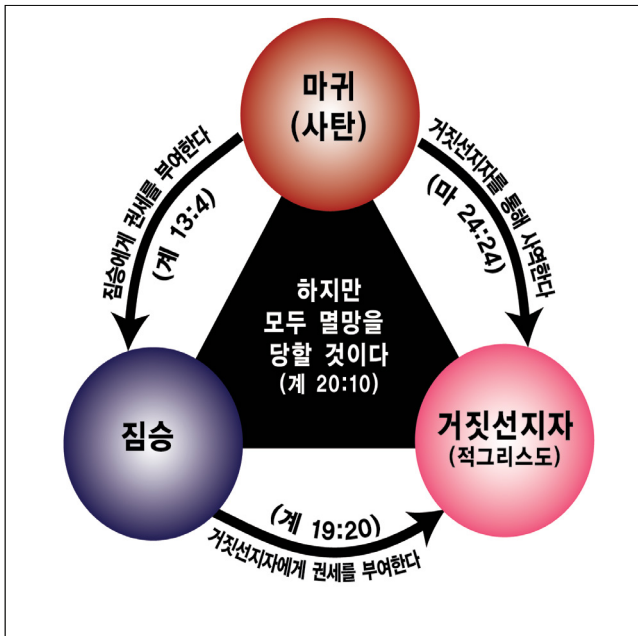
- 마귀 스스로 하나님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마귀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이 거의 끝났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계 12:12).

[계 12: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 갔음이라 하더라

6) 마귀의 삼위일체



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것처럼 마귀 또한 삼위일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마귀는 짐승과 거짓선지자와 삼위일체의 관계를 맺습니다. 마귀는 짐승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계 13:4).
- 또한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세우고 저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권세를 부여합니다(계 19:20).
- 거짓 선지자는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나. 사도 요한은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의 관계를 형성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계 16:13).

-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마귀도 똑같은 삼위일체의 관계를 맺으며 사역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 사역을 하시지만, 삼위

[계 13: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계 19:20]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 16:13]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일체 마귀는 인간의 구원을 망가뜨리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으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것처럼, 짐승도 마귀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습니다.
-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한 모든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계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사역을 돕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7) 마귀의 나라

가. 마귀의 나라는 일곱 산입니다(계 17:9).

- 일반적으로 "산"은 성경에서 권세, 나라, 또는 체제를 상징합니다.
- 음녀(마귀)가 "앉아 있다"고 한 것은 음녀가 이 세속적 체제와 권력의 기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계 17:9]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줍니다.

- 이 산들은 역사적 제국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예: 앗수르, 애굽,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등)을 나타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던 주요한 세상 권력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우상숭배와 거짓종교: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 신앙 체제나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거짓 종교에는 다신교와 사이비종교와 세속적인 영성운동들이 있습니다(신 31:20).

(2) 부패한 정치권력: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거부하고 부패하거나 독재적인 방법으로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부패 권력은 압제적인 정부나 독재와 불의한 법과 정책입니다(시 2:2).

[신 31:20]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것과 같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가리니

[시 2:2]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 (3) 세속적 경제 체제: 물질주의와 탐욕을 조장하며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시하게 만드는 체제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제 체제는 지나친 자본주의나 경제 불평등과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화가 있습니다(딤후 6:10).
- (4) 타락한 문화와 도덕: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왜곡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퍼뜨리는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성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혼란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세계관입니다(롬 12:2).
- (5) 왜곡된 교육과 지식: 하나님의 진리를 배제하거나 왜곡하며 세속적 관점으로 교육과 지식을 전파하는 체제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진화론 중심의 교육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과학적 세계관입니다(골 2:8).
- (6) 타락한 미디어와 예술: 미디어와 예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딤후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골 2: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기보다 세속적이고 타락한 메시지를 퍼뜨리는데 사용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폭력적이고 문란한 콘텐츠와 음란물과 왜곡된 정보 등입니다(마 6:23).

- (7) 영적 배도와 교회의 타락: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진리를 왜곡하거나 타락한 영적 지도력을 가진 교회나 종교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형식주의와 종교적 권위 남용과 복음을 돈벌이로 사용하는 행위 등입니다(딤후 3:5).

나. 일곱산에는 일곱왕이 다스립니다(계 17:10).

- 일곱 왕은 일곱 산과 연결된 권력자들을 가리키며, 세속적 권력의 역사적 흐름을 상징합니다.
-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표현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세상 권력들이 차례로 나타나고 사라짐을 의미함

[마 6: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딤후 3: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계 17:10]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동안 머무르리라

니다.

- '하나는 있고'라는 말은 현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왕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간 동안 계속하리라'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생겨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 여덟째 왕의 출현

-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계 17:11)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미 사라졌던 왕이 또 다시 생겨난 것을 의미합니다.
- 또 다시 생겨난 왕의 모습이 예전에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망해버린 왕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뜻입니다.
- 그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뜻은 이미 그가 일곱 왕 중에 속해 있었던 자고 예전에 있었던 왕과 하는 것이 너무나 똑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 17:11] 전에 있었다
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
에 속한 자라 그가 멸
망으로 들어가리라

- 그래서 여덟째 왕이 생겨날지라도 여전히 '일곱 왕'이 되는 것은 '일곱 왕'이라는 숫자가 특정한 왕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보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 이전에도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에 앞장을 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 이들은 모두 짐승의 '일곱 머리'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라. 왜 일곱왕인가?

- 그 수가 '일곱(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도 완전수가 있듯이 마귀도 하나님의 완전수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 완전수를 사용하시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완전수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하게 완성하는데 완전수를 사용하시

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있어서 교묘하고도 완벽한 계획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완전수에 대한 것 역시 하나님의 것을 훔쳐내는 것입니다.

8) 열 뿔은 열 왕입니다(계 17:12-14).

가. 왜 '열 뿔'이며 왜 '열 왕'인가?

- 그 열 왕은 "..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앞으로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계 17:12).
- '열 뿔'이 '열 왕'이라는 것 역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일곱(7)'이 '천국의 완전수'라면 '열(10)'은 '땅의 완전수'입니다.
- '일곱(7)'이 '하나님의 완전수'라면 '열(10)'은 '사람의 완전수'입니다.
- 10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계 17:12]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계 17:13]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계 17:14] 그들이 어린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하다

[계 17:12]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다. 이는 이 땅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 하지만 이 '열(10)'이라는 숫자가 사탄에 의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세상 왕들의 숫자로 완전수가 됩니다.
- '일곱(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완전한 계획이라면 '열(10)'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둘 다 완전수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완전수'와 '인간의 완전수'로서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나. '열 뿔'과 '열 왕'은 마귀의 모든 추종세력을 의미합니다.

- '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추종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마귀의 추종 세력은 짐승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계 17:13).
- 이러한 '열 왕'의 짐승에 대한 충성심은 마치 24장로들을 연상케 합니다(계 4:10). 24장로들이 주님보좌 앞에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주님을 경배하고 오직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모습처럼 '열 왕' 역시 짐승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마귀가 하나님의 것을 훔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마귀는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 바로 이들이 짐승을 도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 아마겟돈에서의 최후의 전쟁은 이들과의 전쟁이며 당연히 주님은 저들을 이기실 것입니다(계 17:14).
- 지금도 아마겟돈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

[계 17:13]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계 4:10]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계 17:14] 그들이 어린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키고 있습니다.

-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사회와 나라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간의 전쟁이 있고 나라와 나라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모두 마귀의 짓입니다.

9) 음녀(마귀)가 물에 앉았다는 영적 의미

가. 왜 '마귀는 물 위에 앉아있나요?(계 17:1).

- 물은 마귀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표현은 마귀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여러 민족과 사람들 위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물은 네가지 것으로 분류됩니다. 그 네가지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입니다(계 17:15). 이는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계 17:1]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계 17:15]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 (1) 백성은 특정한 그룹이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주로 '백성'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계 13:7).
- (2) 무리는 다수의 사람들이나 군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주로 '족속'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계 7:9).
- (3) 열국은 여러 나라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주로 '나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계 5:9).
- (4) 방언: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똑같이 '방언'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계 14:6).

나. 물은 곧 바다를 의미하며 바다는 마귀의 소굴입니다.

-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습니다(계 13:1).
- 다니엘의 네 짐승 또한 바다에서 나왔습니다(단 7:2-3). 바다는 세상의

[계 13: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 14:6]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 7: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서

[계 5:9]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 13: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단 7:2]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

민족들과 사람들의 집합을 상징합니다.

다. 천국에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다(계 21:1).

- 천국에 바다가 있지 않다는 것은 마귀의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바다는 없지만 생명수 강은 흐르고 있습니다(계 22:1-2).
- 이 생명수 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 온 천국에 두루 퍼지게 될 것입니다.

10) 마귀의 최후

가. 마귀의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 음녀(마귀)가 앉은 읽곱 산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 마귀의 나라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 의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

로 몰려 볼더니
[단 7:3]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계 21:1] 또 내가 새하
늘과 새 땅을 보니 처
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2: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과 및 어린 양의 보좌
로부터 나와서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
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
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
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
라

우시지만 마귀는 스스로 마귀의 나라
를 세우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차이입니
다.

나. 하나님은 짐승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마음에 사탄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계 17:17).

-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심어주지 않
으실지라도 짐승과 그의 무리는 사탄
을 제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 왜냐하면 악한 자는 항상 또 다른 악
한 자를 제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 결국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은 사탄을 죽
입니다(계 17:16). 결국 음녀는 자신을
따르는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죽
임을 당하고 맙니다.

- 이러한 성경의 표현은 실제로 사
탄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을 하는 것
이 아닙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
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사탄의 세

[계 17:17] 하나님이 자
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
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
라

[계 17:16]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
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의 살을 먹고 불로 아
주 사르리라

력이 완전히 진멸 당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탄의 삼위일체는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 짐승이 사탄을 물어 뜯고 거짓 선지자가 사탄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멸망의 모습은 악한 자의 최후입니다.

라. 마귀의 최후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붙잡혀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계 20:2-3).

- 주님께서서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모두 붙잡아 천년동안 무저갱 속에 집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을 잠귀 인봉하고 다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 천년동안 마귀는 아무런 힘도 없이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를 갈며 분노를 참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 악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저갱에 갇혀 있는 마귀는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조금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갖
게 될 것입니다.

마.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존재에 중지부를
찍기 위해서 잠시 무저갱을 여실 것입니
다.

- 그때에 마귀는 사람들을 다시금 유혹
하게 될 것입니다
-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하나님과 다시
금 하나님과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계 20:7-8).
- 하지만 하나님께서 즉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파하시고 저들을
불과 유황 못에 던지실 것입니다(계
20:10).
- 유황 못에는 마귀 뿐만 아니라 마귀를
섬겨왔던 짐승과 거짓 선자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계 19:20).
- 더 이상 마귀는 주님의 백성을 괴롭히
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가 없는 삶은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계 20:7]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옥에서 놓여
[계 20: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
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
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계 19:20] 짐승이 잡
히고 그 앞에서 표적
을 행하던 거짓 선자
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
들을 표적으로 미혹하
던 자라 이 둘이 산 채
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0:10] 또 그들을 미혹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
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
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2. 짐승

1) 마귀는 짐승과 거짓선지자의 도움을 받습니 다.

가. 마귀는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 마귀가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 마귀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파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유혹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의 싸움은 마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역시 마귀의 역사입니다.

나. 마귀는 이러한 전쟁을 위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 사도요한은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계 13:1). 그런데 마귀가 바닷가에 서서 짐승이 바다에

[계 13: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마귀가 바닷가에 서서 짐승을 기다리는 모습을 해석했습니다(계 13:1, NIV).

- 마귀는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했습니다(계 13:2). 짐승은 마귀로부터 부여 받은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데 사용합니다.
- 거짓선지자가 땅에서 나왔습니다(계 13:11). 거짓선지자는 짐승의 하는 일을 도와 마귀의 일이 성취되게 합니다(계 13:12-14).

2) 짐승의 모습

가. 짐승의 모습은 마귀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계 12:3, 계 13:1).

- 마귀도 뿔이 10개였습니다. 짐승의 경우도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 머리는 7개였습니다. 짐승의 경우도 머리가 7개입니다.
- 왕관은 7개입니다. 짐승의 경우엔 10

“And the dragon stood on the shore of the sea. And I saw a beast coming out of the sea. He had ten horns and seven heads, with ten crowns on his horns, and on each head a blasphemous name.”(Rv 13:1, NIV)

[계 13: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계 13: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계 13:12]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계 13:13]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계 13:14]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

다니엘서 2-7-8장 평행비교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

 금 바벨론제국 (BC626-539)	 사자 바벨론	
 은 메대/바사제국 (BC539-331)	 곰 메대-바사	 숫양 메대-바사
 놋 헬라제국 (BC331-63)	 표범 헬라	 숫염소 헬라  작은뿔 시리아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 상징
 철 로마제국 (BC63-AD476 서로마) (BC63-AD1453 동로마)	 괴물 로마	
철/진흙 열국시대 (AD476-세상끝) 적그리스도 출현	 열뿔 열국시대 한뿔 적그리스도	
 돌 하나님나라 (세상끝-영원)	 천국 주님나라	 성전정화 주님의 계림 때에 성전정화 이뤄짐

개의 왕관이 뿔에 씌어졌습니다.

나. 짐승의 뿔은 10개였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7개였습니다(계 13:1).

- 뿔에는 10개 왕관(면류관)이 있었습니다.
-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신성모독'〈블라스페미아〉는 참람한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중상 모독하고 비방하는 행위입니다.
- 하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가장 큰 죄로 여기십니다(마 12:31).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훼방하는 행위입니다.

3) 짐승의 모습은 사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만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면류관이 머리에 씌어졌다는 점입니다.

가. 짐승에게는 왕관(면류관)이 뿔에 씌어졌

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계 12: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계 13: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마 12: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는데 사탄에게는 왕관(면류관)이 머리에 씌어졌습니다.

- 이는 사탄이 짐승의 머리됨을 의미합니다.
- 용(사탄)의 머리에 7개의 왕관(면류관)이 씌어진 것은 그가 하나님처럼 흥내를 내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천국의 완전수인데 마치 그가 하나님과 전주려는 의도에서 스스로 왕관을 쓴 것입니다(계 12:3).
- 그런데 사탄과는 달리 짐승의 뿔에 10개의 왕관이 씌어졌습니다. 이것은 짐승은 이 세상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계 13:1).

나. 사탄(용)은 짐승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는데 그 권세는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권세였습니다(계 13:2).

- 하지만 사탄이 이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 12: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계 13: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계 13: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것이었습니다.

-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수 없습니다.
- 사탄의 권세가 크고 무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사도요한은 짐승의 모습이 '사자'와 '곰'과 '표범'의 모습과 같음을 보았습니다(계 13:2).

가. 사도요한이 보았던 세 짐승은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과 같습니다.

- 다니엘 역시 사도요한처럼 이 세상의 징조에 대해 환상을 보았습니다.
- 다니엘과 사도요한이 바라봤던 짐승들은 모두 '짐승'에 대한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 짐승은 '사자'처럼 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또한 짐승은 '곰'처럼 그 힘과 능력이 강할 것이며 '표범'처럼 그

[계 13: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무자비함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철의 짐승'처럼 피도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나.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의 순서는 가장 먼저 '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곰'이고 세번째는 '표범'이었습니다. 맨 나중에 언급된 짐승은 '철과 같은 모습을 가진 짐승'이었습니다(단 7:4-7).

- 성경학자들은 '사자'로 표현될만한 나라를 '바벨론제국'이라 말하고 있으며 '곰'으로 표현되는 나라는 '바사제국'이며 '표범'으로 표현되는 나라는 '헬라제국'이며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철과 같은 짐승'은 '로마제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짐승은 어느 특정한 나라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훼방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영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단 7: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단 7:5]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 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 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단 7: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단 7:7]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 물론 성경학자들의 생각처럼 각각의 짐승이 대표하는 나라들이 이 세상의 재앙을 불러 일으키고 성도를 핍박하는 짐승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오히려 짐승들의 활동은 그렇게 대표하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와 민족에 퍼져 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 사도요한은 짐승의 모습이 3가지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다니엘은 짐승의 모습을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 다니엘은 네 가지 짐승을 설명할 때에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짐승들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이 언급한 짐승의 순서와 다니엘이 언급한 짐승의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 사도요한은 짐승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특정한 짐승들을 언급하며 설명했던 것이지만 다니엘은 짐승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다 구체적이고도 시대적으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5) 짐승은 이처럼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훼방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는데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서 지금까지 열심히 그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 어느 특정한 나라에 의해 이 세상의 악이 지배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짐승의 세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바벨론제국'과 '바사제국', '헬라제국', 그리고 '로마제국'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렇게 언급된 4개의 제국 외에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동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제국들에서도 짐승의 흔적은 어김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 대한 생각을 보다 폭 넓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6) 사도요한은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 것을 보았습니다(계 13:3).

[계 13: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가. '온 땅'이라는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 이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 또한 '이상히 여겨'라는 말은 '기이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듯이 짐승의 치유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짐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말은 짐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 짐승은 그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굳건하게 일어서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성도가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잡으며 일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를 바라
볼 때 그 믿음이 참으로 위대해 보이
듯이 끝까지 죽지 않고 견디며 더욱
강인해지는 짐승을 바라보는 세상 사
람들이 짐승을 더욱 존경하고 신뢰하
여 마침내 경배까지 하게 되는 모습
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 하나님을 훼방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일을 전
문으로 하는 짐승은 그 전문성을 대를 이어
존속해 오고 있습니다.

가. 짐승의 말은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위
대한 왕이 사라지면 그보다 더 악한 왕이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되는
것은 짐승의 끈질긴 성품이 드러나는 것
입니다.

나. 하나님에 의해 밟히면 밟힐수록 더욱 강
하게 살아나는 짐승의 모습은 사람의 발

에 밝히면 밝힐수록 더욱 살아나는 잡초
와도 같습니다.

다. 이러한 짐승의 전문성은 시대를 거듭하
여 이어지고 있으며 마치 죽은 것 같았으
나 또 다시 살아나는 잡초와 같은 모습을
보게 합니다(계 13:4-8).

8) 사탄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세
상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물
론 사람들은 사탄에게도 경배를 합니다. 하
지만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에게도
경배를 합니다(계 13:4-8).

가. 이러한 모습은 마치 성도들이 하나님아
버지를 경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 사탄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에서 하
나님을 흉내내고 천국을 흉내냅니다. 심
지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까지 흉내를 내기 위해

[계 13:4] 용이 짐승에
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
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
리요 하더라

[계 13:5] 또 짐승이 과
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마
흔 두 달 동안 일할 권
세를 받으리라

[계 13: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
라

[계 13:7] 또 권세를 받
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
게 되고 각 족속과 백
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
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 13: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
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
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
승에게 경배하리라

발악을 합니다.

다.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오직 주님 뿐이시며 결코 짐승은 그것까지 흉내 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9)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마흔 두 달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계 13:5).

[계 13:5]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가. 42개월은 3년 6개월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이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를 의미합니다.

나. 사탄은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서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3년 6개월의 환란 기간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러한 사탄의 활동은 짐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짐승 역시 이 세상이 창조 된 때부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10) 사도요한은 짐승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사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계 13:6).

가. 짐승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을 훼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훼방하는 것입니다.

-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나. 짐승은 이 땅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도를 핍박할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 13:7).

다. 짐승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핍박할 때에

[계 13: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계 13: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 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할 것입니다.

- 저들이 짐승을 경배하는 이유는 살기 위함입니다.
- 그들은 모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들이 짐승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라. 하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결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만을 경배할 뿐입니다.

3. 거짓선지자(계 13:11-15)

- 1) 사도요한은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을 보았습니다.

가. 그의 모양은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였습니다(계 13:11).

나. 그의 모양이 양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 13: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계 13:12]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계 13:13]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계 13:14]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계 13:15]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쫓아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어린 양이신 주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다. 또한 그가 용처럼 말하는 것은 그가 사탄과 하나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계 13: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 2)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포함하여 사탄은 바다의 짐승과 더불어 삼위일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가. 이는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듯이 사탄도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삼위일체는 '사탄'과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 3)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다의 짐승에게 경배한

다는 것입니다(계 13:12).

가. 그는 짐승에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나. 이러한 그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그가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사탄의 삼위일체는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땅에서 나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는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 큰 이적을 행합니다.

가. 그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능력을 행사합니다(계 13:13).

나. 거짓 선지자가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

[계 13:12]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계 13:13]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이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적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경배케 하기 위함입니다.

다.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합니다.

라. 거짓 선지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핍박하는데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는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계 13:15).

5)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케 하기 위해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계 13:16-18).

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계 13:17).

나.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계 13:15]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밋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 13: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계 13: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계 13: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계 13: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 마귀의 영향을 받아 권력과 권세를 부
여잡은 나라와 기업들의 요구에 복
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조치가 가해질 것입니다.
-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과 결탁하
거나 동조하지 않으면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
록 18장에는 음녀 바벨론과 장사를
하여 부자가 된 땅의 상인들을 묘사
하고 있습니다(계 18:3).

계 18:3] 그 음행의 진
노의 포도주로 말미암
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
불어 음행하였으며 땅
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
다 하더라

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마귀의 타락한 교리들과 정책
들과 마주하게 될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가담하지 않을 때 당해야하는 사회적인
고립과 경제적인 고난을 당면하게 될 것
입니다.

6) 거짓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

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영은 성경

에서 동일한 악한 세력으로 묘사되며, 이들은 마귀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나. 적그리스도의 영이 곧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듯이 적그리스도는 짐승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다. 거짓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을 합니다. 거짓선지자라고 하면 마치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요일 4:1).

-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마 24:24).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모두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 귀신은 거짓선지자에 의해 일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는 마치 천사가 성령님에 의해 일하는 영적 존재들인 것과 같습니다.
- 우리를 공격하고 훼방하는 존재는 악

[요일 4:1]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마 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한 영들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적 존재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엡 6:12).

[엡 6:12] 우리의 싸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7)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정의

가.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요일 4:1).

[요일 4:1]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나.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영으로 설명됩니다(요일 4:3).

[요일 4: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다. 그들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라. 예수님께서서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시며, 그들의 미혹을 강조하십니다(마 24:24).

[마 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요일 2:18).

-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역을 부정하는 가르침을 퍼뜨립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듭니다(요일 2:22).
-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요일 2:18]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일 2:22]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8 장

/

마귀와의 전쟁

제 8 장 마귀와의 전쟁

훈련 목적

- *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 이해한다
- * '이기는 자'에 대해 이해한다
- * 요한계시록의 재앙에 대해 이해한다
- * 세상의 종말과 천국에 대해 이해한다
- *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땃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 요한계시록을 일독한다
- * '이기는 자' 서적을 읽고 체험일지 쓴다

1. 하늘의 전쟁

- 1) 마귀는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계 12:7-9).

가.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 마귀는 하나님의 지으신 천사 중에서 매우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계명성(Morning Star)'으로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계 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불리웠습니다 (사 14:12).

- '계명성'은 '새벽별'을 뜻하며 이것의 라틴어가 '루시퍼(Lucifer)'입니다.
- 예수님의 이름도 '계명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빛나는 새벽별(the bright Morning Star)'이라고 불려졌습니다(계 22:16).
- 루시퍼의 이름이 '계명성'으로 불려졌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피조물 중에서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나. 마귀가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 교만으로 인해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사실조차 잊었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존재다보니 교만해진 것입니다.
- 결국 그는 교만이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하나님과 견주는 자리까지 올라가고 말았습니다(사 14:13-14).
-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교만하면 멸망하게 됩니다(잠

[사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 22: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사 14: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 의산 위에 앉으리라

[사 14: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지리라 하는도다

18:12).

- 교만은 누구라도 떨어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교만때문에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 14:11-12).

2) 마귀는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가. 하나님 군대의 장군은 미가엘이었습니다.

- 미가엘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며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 미가엘은 다니엘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다니엘에게 비전을 해석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단 12:1). 또한 미가엘은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주님을 도와드렸습니다(단 10:12-13).

[잠 18:12]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
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
잡이니라

[사 14:11]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음이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
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사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
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단 12:1] 그 때에 네 민
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
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
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
라

- 미가엘은 유다서에 등장합니다(유 1:9). 그는 모세의 시체에 대해 사탄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가엘이 권위와 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 미가엘의 역할과 기능

- 미가엘은 하나님 군대의 총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가장 중심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성도들에게 힘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다. 마귀는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적하여 용(사탄)의 사자들이 싸웠습니다.
- '용의 사자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이 용(사탄)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 된 것입니다.
- 유다서에는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단 10:12]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단 10:13]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와 서나를 도와 주므로

[유 1:9]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다. '자기 지위'라는 말은 <아르케>입니다. 이 <아르케>라는 말은 '태초'(요 1:1)라는 뜻이며 '통치자(정사)'(엡 6:12)라는 말로 해석되었습니다.

-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이 원래 누리던 지위를 버리고 사탄을 떠나 결국은 지위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유 1:6).

3)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가. 하늘 전쟁에서 패한 후 사탄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은 하늘에 거할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계 12:8).

나. 결국 그들은 땅으로 내어 쫓기고 말았습니다(계 12:9).

- 사탄에 의해 그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은 하늘에서 쫓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계 12:3-4).
- 친구를 잘못 만나도 신세 망치는 법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엡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유 1: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계 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 12: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계 12:4]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

인데 하물며 사탄(루시퍼)을 따랐으니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게 되겠습니까? 결국 타락한 천사들은 용(사탄)과 함께 이 세상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4) 이 땅에 떨어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가.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벧전 5:8).

나.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엡 6:12). 끊임없이 귀신들은 온 세상을 피고 있습니다(계 12:9).

다. 타락한 천사들로 이 세상에 떨어져 귀신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고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

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벧전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엡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계 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님과 멀어지도록 공격합니다(계 12:10).

2. 아마겟돈 전쟁

- 1)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가. 세상에 임하는 재앙 중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테 강에 쏟아질 때 강물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동방의 왕들이 말라버린 유브라테 강을 통과하여 서방의 왕들과 하나로 뭉치게 될 것입니다(계 16:12).

다. 동방의 왕들과 서방의 왕들이 하나로 뭉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함입니다(계 16:14).

-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저들을 조장하는 것입니다(계 16:14).
-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계 12: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 16:12]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계 16:14]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곧 '귀신의 영'입니다(계 16:13-14). '귀신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이러한 귀신의 영이 세상의 왕들을 유혹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 16:13]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계 16:14]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2)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2차 전쟁입니다.

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곧 '아마겟돈'입니다(계 16:16).

[계 16:16]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 '아마겟돈'의 원래 히브리 음역은 <하르 므깃도>입니다. <하르>라는 단어는 '작은 산'이라는 뜻이므로 <하르 므깃도>는 '므깃도 산'을 가르킵니다.
-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성경에 오직 이곳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므깃도'는 애굽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대로에 자리잡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 이곳에서 바락과 드보라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격퇴했습니다(삿 5:19-21).
- '아마겟돈'이 '므깃도 산'이란 뜻이지만 실제로는 산이 아니라 평야입니다. 이는 전쟁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입니다.

[삿 5:19]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므깃도 물가 다아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삿 5:20]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삿 5:21]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 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나. 아마겟돈이란 단어의 영적 의미

-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가다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단어의 '군대를 소집하다'라는 뜻입니다.

- 이 <가다드>라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마게드>가 되어 그 뜻은 '군사를 소집하는 곳'이란 의미가 됩니다.
- 여기에 접미어 <오>를 붙이면 <마게돈>이 되는데 이것은 '군대를 소집하는 장소'로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 따라서 <아마겟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집결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는 어느 특정한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다는 사탄의 세력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나 단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 지금도 마귀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 바벨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제연합기구가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한 준비도구입니다. 에큐메니칼 종교단 일주의 운동 또한 사람을 모으기 위

함입니다.

- 오늘날 과학과 인터넷이 발달됨으로 인해 더욱 사람 모으기가 용이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비행기로만 외국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3)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방해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가. 첫번째 전쟁인 하늘전쟁에서 패하여 이 땅에 쫓겨난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벰전 5:8).

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행하는 그런 일들을 멸하기 위함입니다(요일 3:8).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마귀를 멸하는 것이 주님의 행하실 사명이었습니다.

[벰전 5:8] 근신하라 깨
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다 삼킬 자를 찾나
니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
죄함이라 하나님의 아
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
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
이라

다. 우리는 삶가운데 계속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악한 영들로 하여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엡 6:12). 우리의 상대는 악한 영들입니다.

[엡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4) 마귀는 2차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패하고 맙니다.

가. 일곱번째 재앙이 '공기' 중에 쏟아집니다 (계 16:17).

- '공기'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 재앙이 이 세상에 쏟아진 것은 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엡 2:2).

[계 16:17]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엡 2: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나.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들려오며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

해 온 세상의 도시가 무너질 것입니다(계 16:18-20).

다. 한 달란트나 되는 거대한 우박이 떨어져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계 16:21).

- 대략 30-50kg 정도되는 우박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축구공보다 더 큰 사이즈입니다.
-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파쇄할 것입니다.

라.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삶가운데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 오직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로 악한 영을 파쇄할 수 있습니다.

[계 16:18] 번개와 음성들과 우렛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계 16:19]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계 16:20]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계 16:21]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니다.

- 거대한 우박에 악한 세력이 죽임을 당하듯이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3. 곡과 마곡의 전쟁



1)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납니다.

가.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무저갱에 갇혀 있던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풀려납니다(계 20:7).

- 천년왕국이 복천년이 된다는 것은 마귀의 세력이 무저갱에 천년동안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계 20:3).

[계 20:7]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옥에서 놓여

[계 20: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잡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 오늘날에도 마귀의 세력이 없는 곳은 천국과도 같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2:28).

[마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곡과 마곡의 전쟁은 심판대에 서기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 이미 마귀는 두차례 하나님을 대적하여 큰 전쟁을 치렀지만 모두 패하고 말았습니다.
-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 마지막 모든 사람이 백보좌 심판대에 서기 전까지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다.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 비교

-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의 재림 이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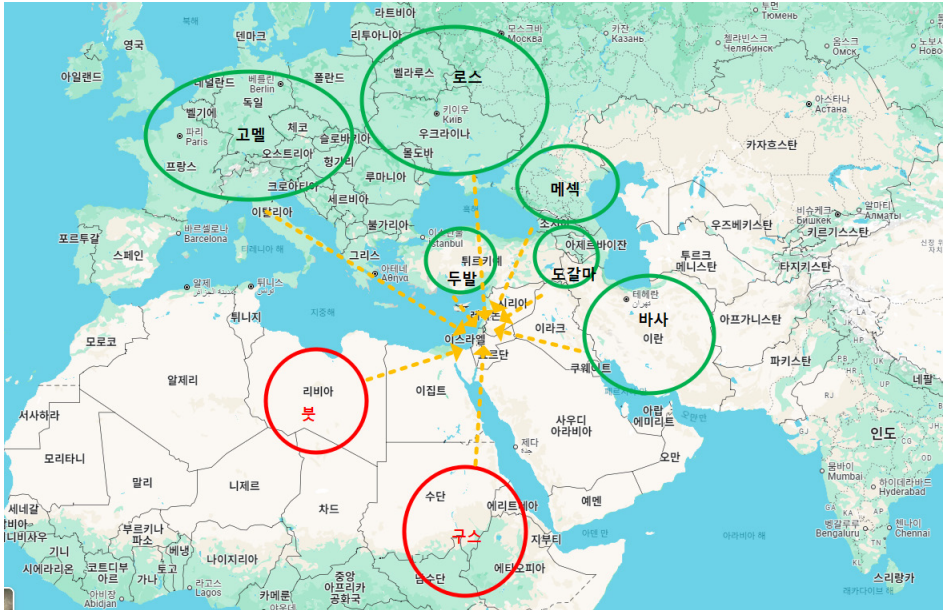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재림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에 승리를 해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모두 마귀로 인해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 두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전쟁입니다.

2)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의 전쟁

가.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 전쟁은 요한계시록의 곡과 마곡의 전쟁과는 다른 전쟁입니다.

- 요한계시록의 곡과 마곡 전쟁은 천년 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 전쟁은 세상의 종말 때에 일어납니다.



-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마귀에 의해 집행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에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언급되었지만 사실상 전 시대에 걸쳐 계속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 가정에서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교회에서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으며 나라에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항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

[겔 38:2] 인자야 너는

습니다.

- 나.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러시아가 주도권을 갖고 진행되는 전쟁입니다.
- 곡과 마곡의 전쟁을 주도하는 나라들: 러시아, 유럽, 터키, 이란, 에디오피아, 수단, 리디아 등(겔 38:2-6).
 - 마곡은 '로스', '메섹', '두발'을 가리키고 이 세 지명은 모두 러시아를 의미한다고 보곡 있습니다(겔 38:2-3).
 - 마곡을 돕는 나라는 바사(이란), 도갈마(터키동부), 고멜(유럽), 붓(리비아), 구스(에티오피아, 수단)입니다(겔 38:5-6).

3) 곡과 마곡의 전쟁 결과

- 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러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노를 발하실 것입니다(겔 38:18).

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겔 38:3]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겔 38:4]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나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겔 38:5]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겔 38:6]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나와 함께 끌어내리라
[겔 38:5]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겔 38:6]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나와 함께 끌어내리라

[겔 38:18] 그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겔 38:19]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겔 38:19-20).

다.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칼로 죽일 것입니다(겔 38:21).

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온역과 피로 심판하시고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을 비 내리듯 내리실 것입니다(겔 38:22).

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소멸시킵니다(계 20:9).

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 서는 마귀와 짐승과 거짓선지자를 불과 유황 못에 던지실 것입니다(계 20:10). 마귀와 짐승과 거짓선지자는 불과 유황 못에서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일어나서
[겔 38:20]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겔 38:21]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겔 38:22]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계 20:9]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계 20:10]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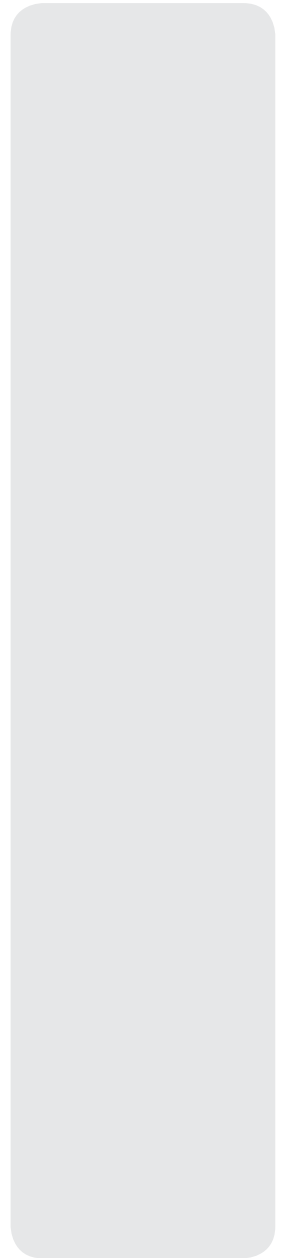
4) 요한계시록의 곡과 마곡의 전쟁과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의 전쟁의 비교

가. 요한계시록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백보좌 심판을 받기 위해 치러져야 하는 마귀와의 전쟁지만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현재의 삶 가운데 치러지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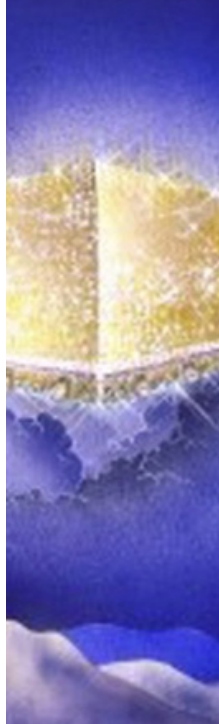
나.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아마겟돈 전쟁과 다소 흡사합니다. 다만 아마겟돈 전쟁은 동방의 왕(중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만 곡과 마곡의 전쟁은 북방 왕(러시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라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간적으로 볼 때는 복천년 간의 거리를 두고 있지만 두 전쟁 모두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방해이며 천국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와의 전

쟁입니다.







9 장

/

천국의 성전

제9장 천국의 성전

훈련 목적

- *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 이해한다
- * '이기는 자'에 대해 이해한다
- * 요한계시록의 재앙에 대해 이해한다
- * 세상의 종말과 천국에 대해 이해한다
- *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댛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 * 요한계시록을 일독한다
- * '이기는 자' 서적을 읽고 체험일지 쓴다

1. 이 땅의 성전과 천국의 성전 비교

1) 하늘의 장막과 성전의 차이

가. 성전과 장막은 같은 말입니다.

- 장막<스케네>는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계 21:3).
- 장막과 돛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서

어는 '성막'〈미쉬칸〉입니다.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성막'이라고 사용되었습니다(출 40:33).

[출 40:33]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나. 하나님은 장막에 임하십니다.

- 성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나오스〉인데 이것은 다소 건물적이고도 외형적인 성전을 의미합니다(계 7:15).
-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는 장소는 〈나오스〉가 아니라 〈스케네〉입니다. '성전'〈나오스〉이 아니라 '장막'〈스케네〉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계 7: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 거룩한 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 그 이유는 하나님아버지와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계 21:22).
- '성전'〈나오스〉이 없다는 말은 건물적이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 21: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 장막의 역할

가. 하나님의 보좌가 장막에 있습니다.

- 하나님의 보좌는 오직 '장막'〈스케네〉에만 있습니다.
-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집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장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 교회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의 보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성전'〈나오스〉가 아니라 '장막'〈스케네〉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장막에는 성도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 장막에는 하나님과 성도만이 존재합니다.
- 이방인은 장막에 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성막과 성전에는 이방인이 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장막에는 이방인이 거할 수 없습니다.
- 천국의 성전을 의미하는 에스겔 성전

에도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겔 44:9).

- 오직 성도만이 장막에 거할 수 있으며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도는 하나님을
정성껏 섬겨야 합니다.

다. 이 세상 성전과 천국 성전을 구분해야
합니다.

- 이 세상 성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
세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
전, 헤롯 성전
- 천국의 성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
휘장, 에스겔 성전, 천국의 장막

[겔 44:9]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
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
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
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
리라

2. 천국의 장막의 능력

1) 장막의 효력

가. 장막에는 영혼육의 강건함이 보장됩니
다(계 7:16).

- 배고픔이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배고

[계 7:16] 그들이 다시
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아무 뜨거운 기운
에 상하지도 아니하리
니

품도 없지만 흔적인 배고픔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충만함을 줄 것입니다(계 21:4).

- 목마름이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목마름도 없지만 흔적인 목마름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만족함을 줄 것입니다(딤후 6:6).
- 상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피해를 끼치거나 해를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호함을 의미합니다(사 41:10).
- 눈물이 씻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억울함이 해소되는 것이며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원수를 갚아주는 신원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사 61:2).
-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이 있을 것입니다(계 3:20).

나. 장막에는 생명수가 공급됩니다.

- 생명수는 영을 숨쉬게 합니다. 생명수로 채워질 때 우리 영이 새롭게 변화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딤후 6:6]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사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61:2] 여호와와 의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계 3:20] 불지여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를 받습니다(겔 36:25-26).

- 생명수는 영이 활동하게 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때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요 7:38).
- 생명수는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동행하게 합니다.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동행했습니다(창 3:9).

[겔 36:25]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겔 36: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요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창 39] 여호와 하나님 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3. 천국의 장막이 세워지는 과정

1) 장막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가. 다윗의 장막(스케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 하나님은 이 땅에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행 15:16).
-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이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는, 다윗의 장막이 곧 하늘의 장막과 같았기 때문입니다(암 9:11).

[행 15:16]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암 9:11]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나. 다윗의 장막은 오직 하나님과 성도만 있었습니다.

- 다윗의 장막이 하늘의 장막과 흡사했던 이유는 다윗의 장막에는 오직 하나님과 성도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 다윗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 이방인은 다윗의 장막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 다윗의 장막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은 그 자체가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다. 우리 삶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고전 3:16).
-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정결과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일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면 우

[고전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리 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고전 3:17).

- 우리의 몸은 다윗의 장막처럼 유지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야 합니다. 나는 오직 성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2) 대추수가 있어야 장막이 회복됩니다.

가. 주님께서 대추수를 인도하십니다.

- 주님의 손에 예리한 낫이 들려있습니다(계 14:14).
- 주님께서 예리한 낫을 휘두르실 것입니다. 이는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계 14:15).
- 주님께서 낫을 휘두르시니 땅의 곡식이 거둬질 것입니다(계 14:16).

나. 모든 사람은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둘게 될 것입니다(계 14:18).

[고전 3: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계 14:14]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계 14: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 이다하니

[계 14:16]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 14:18]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려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 포도를 거둔다는 것은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다.

다. 대추수와 함께 대진노가 진행됩니다.

- 대추수가 있을 때 대진노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계 14:19).
- 신앙의 열매가 없는 성도는 대진노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밟힐 때 그 피가 말 굴레에까지 닿는데 1,600스다디온에 퍼질 것입니다(계 14:20).
- 1,600스다디온까지 피가 넘쳤다는 것은 온 세상에 넓게 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600이라는 숫자는 $4 \times 400 = 1,600$ 로 계산되는데 '4'는 세상 사방을 뜻합니다. 또한 1,600스타디온은 대략 300km 정도인데 이는 팔레스타인 남과 북의 전체 거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 14:19]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계 14:20] 성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천육백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3) 대진노로 멸망하는 마귀집단.

가. 마귀, 곧 음녀는 성도의 피를 취합니다.

- 마귀의 음식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 친히 몸을 버리셨지만 마귀는 오히려 자신을 위해 성도의 몸을 취합니다.
- 마귀는 성도의 피를 취합니다(계 17:6).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지만 마귀는 오히려 자신을 위해 성도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성도의 피를 마심으로 술취한 사람처럼 취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성도의 피를 탐닉합니다.

나.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망케 하십니다.

- 하나님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사 마귀를 대적하는 한 뜻을 갖게 하십니다(계 17:17).
- 하나님은 짐승과 열 뿔로 하여금 음

[계 17:6]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계 17:17]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녀(마귀)를 미워하게 하십니다(계 17:16).

- 짐승과 열 뿔은 음녀를 망하게 하기 위해 그를 붙잡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으며 불로 사를 것입니다.

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게 될 것입니다(계 19:20).

-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계 20:10).
- 마귀를 따르던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탄 자들과 그들이 탔던 말들과 자유인들과 종들과 작은 자와 큰 자와 모든 자의 살이 새들에 의매 먹히게 될 것입니다(계 19:17-18).
- 이들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았으며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자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계 17:16]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계 19:20]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 20:10]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 19:1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계 19:18]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탄 자들과 그들이 탔던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4) 장막이 회복될 때의 성도들의 모습

가.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 애통해 합니다.

- 마귀를 따르던 자들은 마귀의 나라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계 18:2).
- 바벨론성이 순식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계 18:10). 이처럼 마귀의 나라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 마귀를 뒤따르는 자들이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해합니다(계 18:19).

나. 바벨론성의 멸망은 성도들을 크게 기쁘게 합니다.

- 마귀의 나라가 멸망함으로 인해 하늘의 천사들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크게 기뻐합니다(계 18:20).
-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계 19:1).
- 우리는 마귀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믿고서 날마다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 18:2]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 18:10]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계 18:19]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계 18:20]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계 19:1]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게 된다.

- 하나님의 재앙이 모두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될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계 15:1-2).
-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릅니다(계 15:3).
- 성도들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비로소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게 됩니다(계 15:5).

[계 15:1]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리로다

[계 15:2]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계 15: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 15:5]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요한계시록반 교재

초판발행 2014. 12. 24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등 록 제C-2013-018595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터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 사역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국제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의 신학교로서 강도사고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국제신학교는 1년 6학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 국제신학교는 수시입학이 가능하며 한부분 사역자일 경우 학비 면제를 받습니다.

● 접수: www.wslseminary.com

● 이메일: inourlove@gmail.com

● 문의: 손에스더목사(010-3909-8844)

● 유튜브채널: www.RevivalForChurch.com